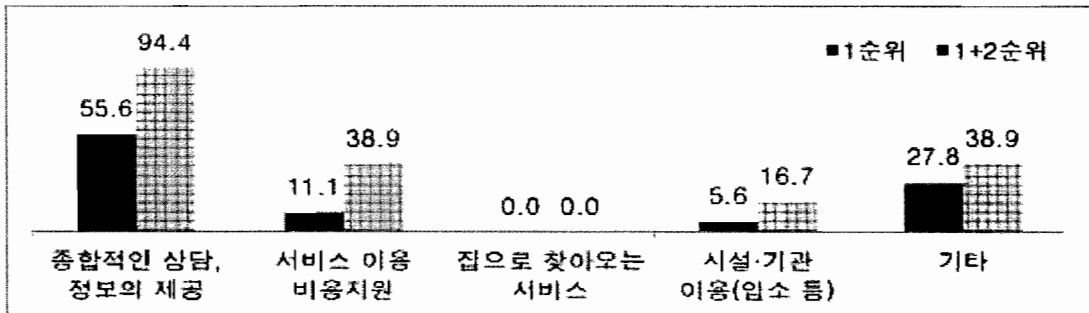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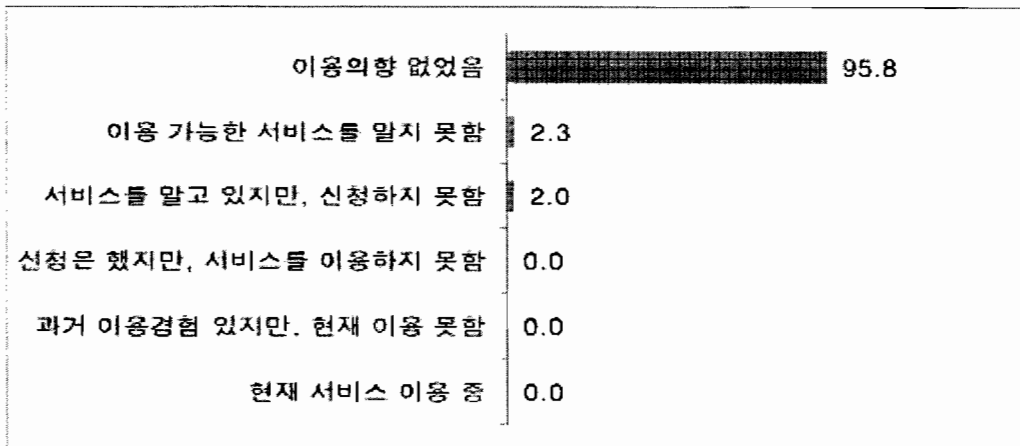


- 평생교육 및 기초적인 학습 관련 어려움에 대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의 인지, 신청, 이용 경험에서는 거의 대부분(95.8%) 이용의향이 없었음.([그림 5-70] 참조)
- 평생교육 및 기초적인 학습을 위한 지원 및 서비스 경험이 있는 경우(N=17) 주된 불편사항으로는 1순위 응답을 기준으로, 적합한 서비스 부재(29.4%), 비용부담(23.5%), 거리·교통문제 (23.5%), 서비스 정보부족(11.8%) 등의 순서였음.(<그림 5-7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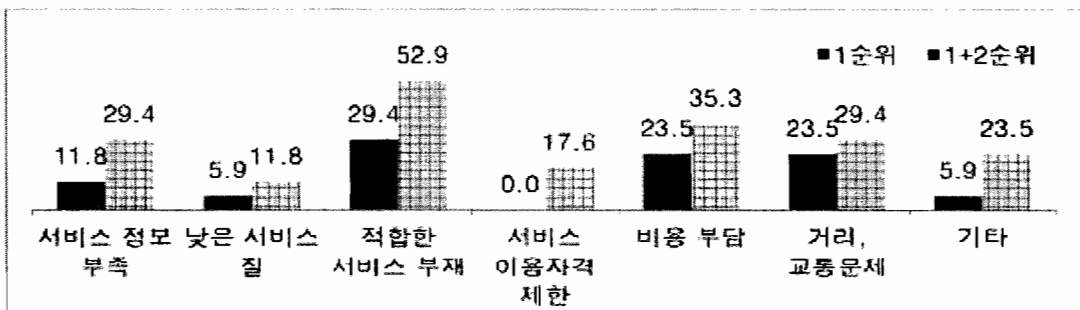
[그림 5-69] 필요한 외부지원/서비스 - 평생교육 및 기초적인 학습(%)



[그림 5-70] 사회보장지원/서비스 인지·신청·이용 경험 - 평생교육 및 기초적인 학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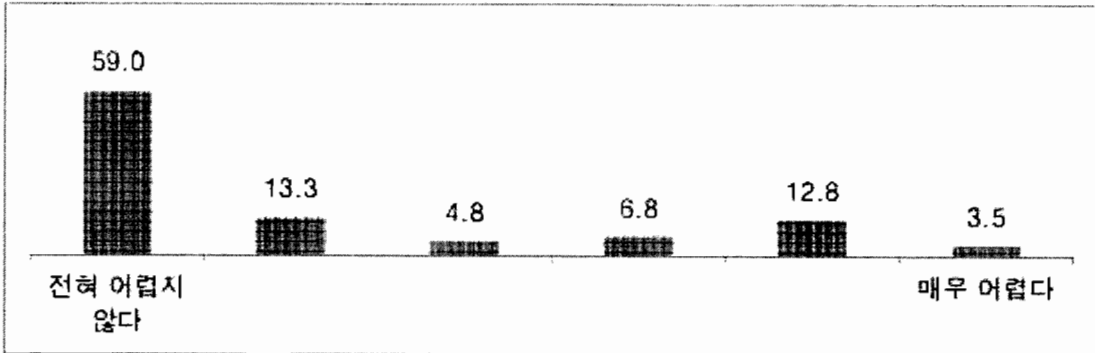


[그림 5-71] 사회보장지원/서비스 관련 불편사항 - 평생교육 및 기초적인 학습(%)



ii 고 용

[그림 5-72] 어려움 정도 - 취업·창업활동 및 기회 마련(%)



- 취업·창업활동 및 기회 마련의 어려움은 본 조사에 참여한 전체 400가구를 대상으로 구직이나 일자리 발굴 등에 어려움이 없는지 묻는 문항으로, 분석결과는 [그림 5-72]와 <표 5-57>과 같음.
- 지난 1년 중 가구 내에서 취업·창업활동 및 기회 마련 등과 관련된 어려움을 경험했는지 조사한 결과, 전혀 어렵지 않다는 응답은 59.0%로 나타났으며, 어렵지 않다는 2점 응답비율은 13.3%로 전체의 72.3%가 취업이나 창업활동에 어려움이 없었다고 응답하였음. 반면, 어렵다와 매우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은 16.3%였음.
- 가구특성별 취업이나 창업에의 어려움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맞벌이 보다는 외벌이가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표하는 비율이 높았고, 경제적 형편(경제상황, 사회경제적 지위, 가처분 가구소득)이 어려운 응답자들에서 상대적으로 취업이나 창업활동 등에 어려움이 있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음.
- 6점 척도를 기준으로 한 평균 점수는 1.9점으로 대체적으로 기초생활유지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응답한 경향성을 확인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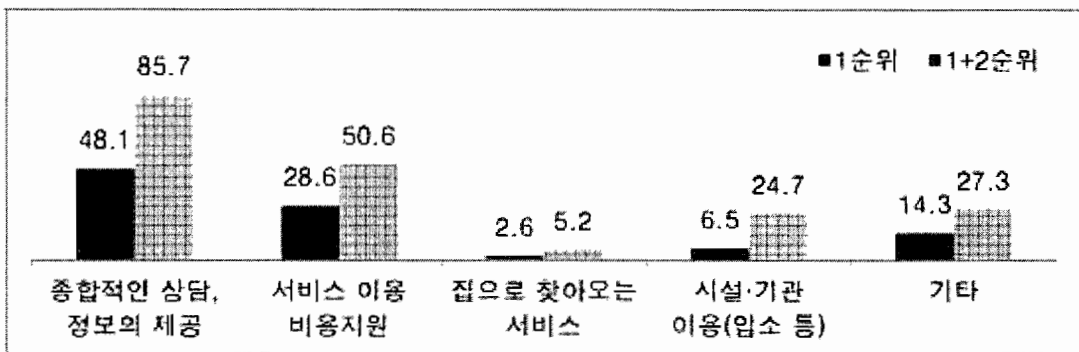
<표 5-57> 취업·창업활동 및 기회 마련의 어려움과 외부지원·서비스 인식 (전체 가구)

구분	어려움의 정도				외부 지원 필요	외부지원/서비스 필요성 (1순위)					
	어렵지 않음	보통	어려움	6점 평균		상담· 정보	이용료 지원	재가 서비스	시설/ 기관	기타	
응답자 전체		72.3	11.5	16.3	2.1	19.3	48.1	28.6	2.6	6.5	14.3
가구규모	1인 가구	73.2	9.8	17.1	2.1	18.3	33.3	40.0	0.0	6.7	20.0
	2인 가구	74.2	9.2	16.7	2.1	16.7	50.0	35.0	0.0	10.0	5.0
	3인 이상	70.7	13.6	15.7	2.2	21.2	52.4	21.4	4.8	4.8	16.7
거주형태	아파트	71.3	12.6	16.1	2.1	19.3	39.5	30.2	2.3	7.0	20.9
	단독/다세대 등	73.4	10.2	16.4	2.1	19.2	58.8	26.5	2.9	5.9	5.9
주택유형	자가	73.8	10.4	15.8	2.0	18.6	48.8	29.3	0.0	4.9	17.1
	전월세/기타	70.4	12.8	16.8	2.2	20.1	47.2	27.8	5.6	8.3	11.1
노인 가구원	있음	78.4	7.4	14.2	1.9	14.8	54.2	20.8	0.0	0.0	25.0
	없음	68.1	14.3	17.6	2.3	22.3	45.3	32.1	3.8	9.4	9.4
장애인	있음	73.8	14.3	11.9	1.9	11.9	40.0	60.0	0.0	0.0	0.0
	없음	72.1	11.2	16.8	2.1	20.1	48.6	26.4	2.8	6.9	15.3
아동	있음	67.6	16.7	15.7	2.2	24.1	46.2	23.1	7.7	7.7	15.4
	없음	74.0	9.6	16.4	2.1	17.5	49.0	31.4	0.0	5.9	13.7
맞벌이	맞벌이	73.1	15.4	11.5	2.0	15.4	58.3	33.3	0.0	0.0	8.3
	외벌이/기타	72.0	10.6	17.4	2.1	20.2	46.2	27.7	3.1	7.7	15.4
경제상황	어려움	67.1	13.6	19.3	2.4	20.7	34.5	31.0	6.9	10.3	17.2
	보통	73.7	10.0	16.3	2.0	19.6	56.1	24.4	0.0	4.9	14.6
	여유로움	80.4	11.8	7.8	1.8	13.7	57.1	42.9	0.0	0.0	0.0
사회경제 지위	상	85.2	11.1	3.7	1.7	7.4	100.0	0.0	0.0	0.0	0.0
	중	74.2	11.1	14.8	2.0	18.8	47.1	31.4	3.9	3.9	13.7
	하	63.7	12.7	23.5	2.5	23.5	45.8	25.0	0.0	12.5	16.7
가처분 가구소득	25%미만	71.0	10.0	19.0	2.2	21.0	52.4	33.3	0.0	4.8	9.5
	25%~75%	71.1	12.9	15.9	2.2	18.9	39.5	23.7	5.3	10.5	21.1
	75%초과	75.8	10.1	14.1	1.9	18.2	61.1	33.3	0.0	0.0	5.6

- 취업·창업활동 및 기회 마련과 관련한 외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에 대해서는 5가구 중 1 개 가구 정도(19.3%)에서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 이 정도의 비율은 다른 영역들과 비교했을 때 높은 수준으로, 일자리 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수준과 정부·지자체의 역할 확대를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됨.
- 가구 특성에 따른 차이를 보면, 3인 이상 가구에서 외부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비율이 높았고, 아동가구, 외벌이 가구,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가구의 응답자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응답비율을 보였음.
 - 이러한 특성을 가진 가구들은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여 더 높고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욕구가 큰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 외벌이 가구와 저소득계층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다각도의 관심과 대책이 요구되는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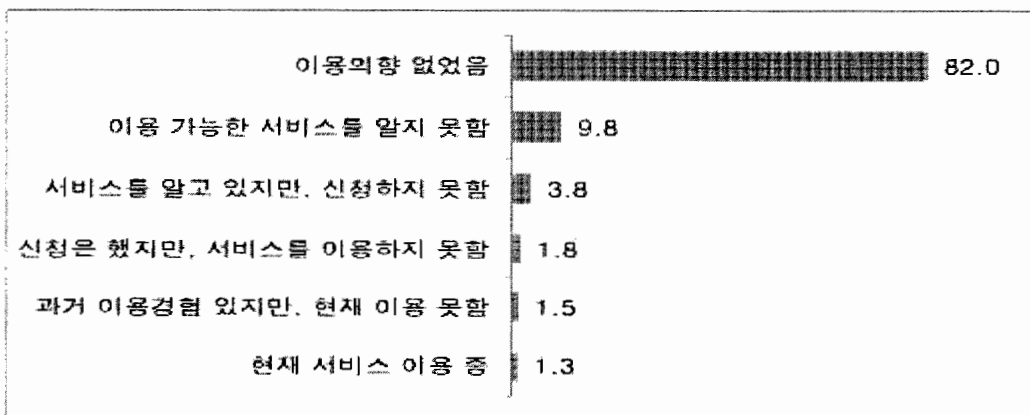
- 취업·창업활동 및 기회 마련 관련 지원 및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N=77), 1순위 응답을 기준으로 종합적인 상담, 정보 제공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았고(48.1%), 그 다음으로 서비스 이용 비용지원이 28.6%였음. 일자리 문제는 취업이나 창업과 관련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가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결과임.([그림 5-73] 참조)
- 가구특성별로 필요한 외부지원/서비스의 차이는 크지 않아서, 정보제공에 대한 욕구가 컸으나, 장애인 가구의 경우 비용지원에 대한 욕구가 더 컸음.

[그림 5-73] 필요한 외부지원/서비스 - 취업·창업활동 및 기회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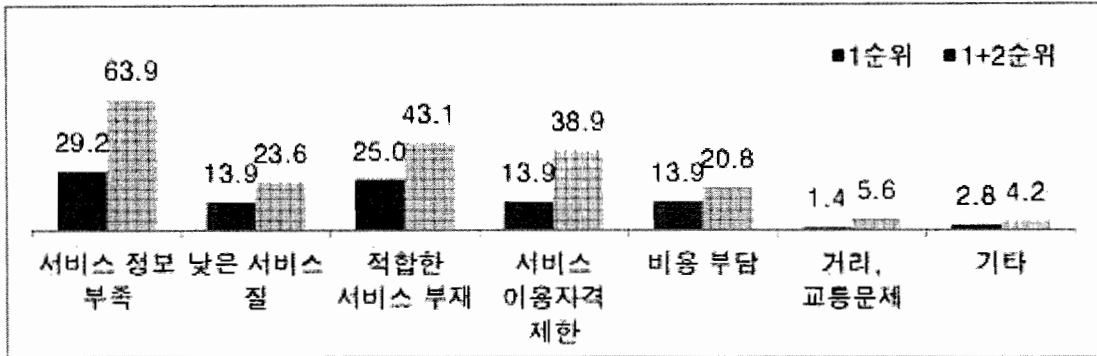


- 취업·창업활동 및 기회 마련 어려움에 대해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의 경험 측면에서는 82.0%가 이용의향이 없었다고 조사되었으며, 이용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한다는 경우도 9.8%로 나타남. 과거 이용은 1.5%, 현재 이용은 1.3%로 나타남.([그림 5-74] 참조)
- 취업·창업활동 및 기회 마련에 대한 지원 및 서비스 인지, 신청, 이용 경험이 있었던 경우(N=72) 주된 불편사항으로는 서비스 정보 부족(29.2%)과 적합한 서비스 부재(25.0%)에 대한 지적이 많았고 낮은 서비스 질, 이용자격 제한, 비용부담 등도 골고루 언급됨.([그림 5-75] 참조)

[그림 5-74] 사회보장지원/서비스 인지·신청·이용 경험 - 취업·창업활동 및 기회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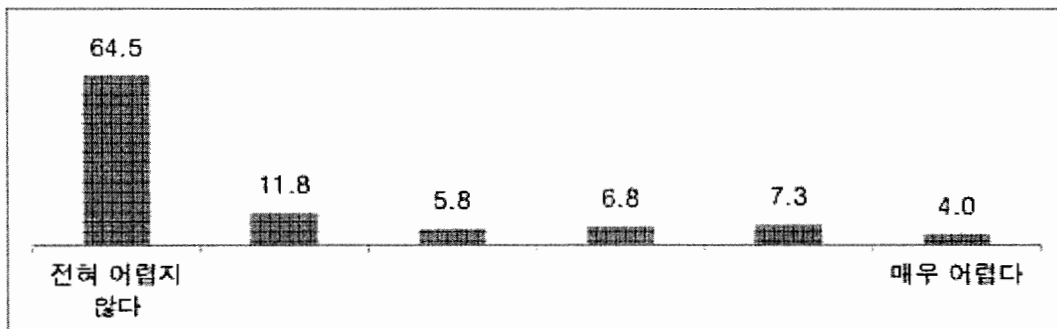


[그림 5-75] 사회보장지원/서비스 관련 불편사항 - 취업·창업활동 및 기회 마련(%)



- 직장생활 유지의 어려움은 본 조사에 참여한 전체 400가구를 대상으로 근무조건, 개인적 방해요인, 정리해고 불안감 등에 어려움이 없는지 묻는 문항으로, 분석결과는 [그림 5-76]와 <표 5-58>과 같음.
- 지난 1년 간 직장생활 유지 어려움과 관련해서는 전혀 어렵지 않다가 64.5%로 조사되었고, 어렵지 않다는 2점 응답비율은 11.8%로 전체의 76.3%가 직장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없었다고 응답하였음. 반면, 어렵다와 매우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은 11.3%였음.
- 가구특성별 취업이나 창업에의 어려움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1인 가구, 전월세 거주, 경제상황 어렵고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비율이 더 높았음.
- 6점 척도를 기준으로 한 평균 점수는 1.9점으로 대체적으로 직장생활 유지에 대하여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응답하였음. 가구특성별로는 경제상황 어려움(평균 2.3점)과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응답자(평균 2.4점)들이 어려움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더 컸음.
- 결국 직장생활 유지의 어려움은 노동조건 및 일자리의 안정성과 관련된 조사내용으로, 본 조사에서도 좋지 않은 경제적 형편과 저소득/비정규직과의 관련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결과가 나왔음.

[그림 5-76] 어려움 정도 - 직장생활 유지(%)



□ 직장생활 유지와 관련한 외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에 대해서는 12.8%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필요하지 않다는 87.3%로 나타났다.

- 가구 특성에 따른 차이를 보면, 3인 이상 가구에서 외부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비율이 높았고, 아동가구,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가구의 응답자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응답비율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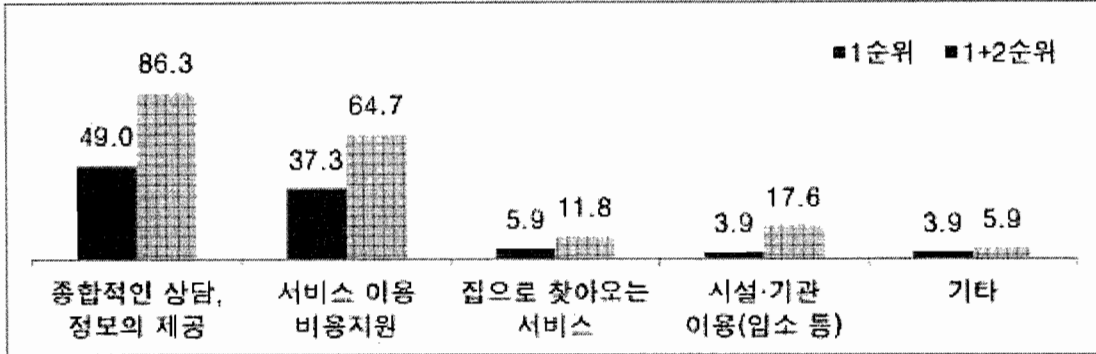
<표 5-58> 직장생활 유지의 어려움 및 외부지원·서비스 인식 (전체 가구)

구분	어려움의 정도				외부 지원 필요	외부지원/서비스 필요성 (1순위)					
	어렵지 않음	보통	어려움	6점 평균		상담·정보	이용료 지원	재가 서비스	시설/기관	기타	
응답자 전체	76.3	12.5	11.3	1.9	12.8	49.0	37.3	5.9	3.9	3.9	
가구규모	1인 가구	75.6	11.0	13.4	2.0	13.4	63.6	27.3	0.0	0.0	9.1
	2인 가구	80.8	10.8	8.3	1.7	8.3	50.0	50.0	0.0	0.0	0.0
	3인 이상	73.7	14.1	12.1	2.0	15.2	43.3	36.7	10.0	6.7	3.3
거주형태	아파트	75.8	13.0	11.2	1.9	12.6	39.3	39.3	7.1	7.1	7.1
	단독/다세대 등	76.8	11.9	11.3	2.0	13.0	60.9	34.8	4.3	0.0	0.0
주택유형	자가	79.6	10.9	9.5	1.8	10.4	60.9	26.1	8.7	0.0	4.3
	전월세/기타	72.1	14.5	13.4	2.1	15.6	39.3	46.4	3.6	7.1	3.6
노인	있음	82.1	8.6	9.3	1.7	8.0	84.6	15.4	0.0	0.0	0.0
가구원	없음	72.3	15.1	12.6	2.1	16.0	36.8	44.7	7.9	5.3	5.3
장애인	있음	81.0	9.5	9.5	1.7	7.1	66.7	33.3	0.0	0.0	0.0
	없음	75.7	12.8	11.5	2.0	13.4	47.9	37.5	6.3	4.2	4.2
아동	있음	75.9	13.9	10.2	2.0	16.7	33.3	38.9	16.7	11.1	0.0
	없음	76.4	12.0	11.6	1.9	11.3	57.6	36.4	0.0	0.0	6.1
맞벌이	맞벌이	76.9	14.1	9.0	1.9	11.5	55.6	33.3	11.1	0.0	0.0
	외벌이/기타	76.1	12.1	11.8	1.9	13.0	47.6	38.1	4.8	4.8	4.8
경제상황	어려움	68.6	12.9	18.6	2.3	17.9	48.0	36.0	8.0	4.0	4.0
	보통	79.4	13.4	7.2	1.8	10.5	50.0	36.4	4.5	4.5	4.5
	여유로움	84.3	7.8	7.8	1.7	7.8	50.0	50.0	0.0	0.0	0.0
사회경제 지위	상	92.6	7.4	0.0	1.4	0.0	0.0	0.0	0.0	0.0	0.0
	중	78.2	14.0	7.7	1.8	11.8	40.6	43.8	6.3	6.3	3.1
	하	66.7	9.8	23.5	2.4	18.6	63.2	26.3	5.3	0.0	5.3
가처분 가구소득	25%미만	77.0	12.0	11.0	1.9	13.0	69.2	30.8	0.0	0.0	0.0
	25%~75%	74.1	13.9	11.9	2.0	13.4	40.7	37.0	7.4	7.4	7.4
	75%초과	79.0	11.0	10.0	1.8	11.0	45.5	45.5	9.1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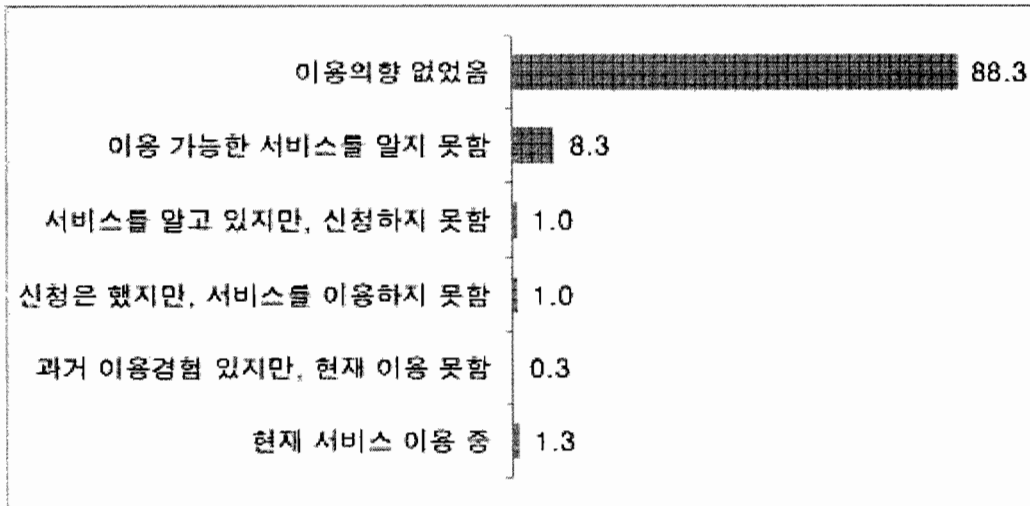
□ 직장생활 유지를 위한 지원 및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N=51) 구체적인 지원 및 서비스로는 1순위 응답을 기준으로 종합적인 상담, 정보의 제공(49.0%), 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37.3%), 찾아오는 서비스(5.9%), 시설·기관 이용(3.9%) 등의 순으로 조사됨. ([그림 5-77] 참조)

- 가구특성별로 필요한 외부지원/서비스의 차이는 크지 않아서, 대체로 이용료 지원보다는 정보제공에 대한 욕구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앞의 일자리 관련 어려움과 마찬가지로 외부 지원이나 서비스의 핵심은 종합적인 상담과 적절한 정보제공에 있다고 보여짐.

[그림 5-77] 필요한 외부지원/서비스 - 직장생활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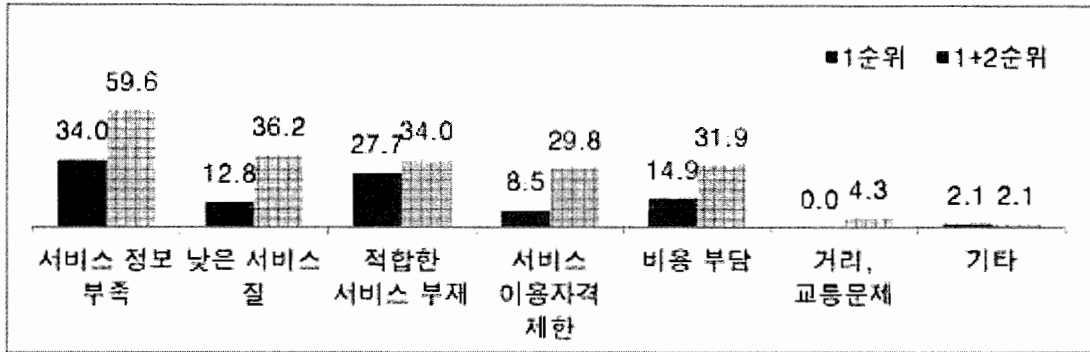


[그림 5-78] 사회보장지원/서비스 인지·신청·이용 경험 - 직장생활 유지(%)



- 직장생활 유지 어려움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의 인지, 신청, 이용 경험에서는 이용의향 없었음이 88.3%로 조사된 가운데, 이용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한다가 8.3%로 나타났음.([그림 5-78] 참조)
- 직장생활 유지 관련 지원 및 서비스 인지, 신청, 이용 경험이 있는 경우(N=47) 불편사항으로는 서비스 정보 부족(34.0%), 적합한 서비스 부재(27.7%), 비용 부담(14.9%), 낮은 서비스의 질(12.8%), 서비스 이용자격 제한(8.5%)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그림 5-79] 참조)
-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지원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함.

[그림 5-79] 사회보장지원/서비스 관련 불편사항 직장생활 유지(%)



㉞ 주거·문화·환경 영역

i 주거

<표 5-59> 어려움 정도 - 주거비 부담(%)

구분	사례수	전혀 어렵지 않다	←			→	매우 어렵다	평균
전체	(400)	54.3	15.5	7.5	5.3	12.0	5.5	2.22
주택유형	일반단독	(56)	69.6	10.7	5.4	1.8	3.6	1.86
	다세대 주택	(118)	49.2	20.3	5.1	4.2	13.6	2.36
	연립주택	(3)	33.3	0.0	66.7	0.0	0.0	2.33
	일반 아파트	(181)	60.8	12.2	7.2	5.5	12.2	2.03
	공공임대아파트	(42)	21.4	23.8	14.3	11.9	19.0	3.12
점유형태	자가	(221)	77.8	10.0	4.5	2.7	3.2	1.49
	전세	(113)	28.3	29.2	11.5	7.1	21.2	2.72
	월세	(62)	19.4	11.3	11.3	11.3	24.2	3.77
	무상	(4)	25.0	0.0	0.0	0.0	50.0	4.25
주거/교육급여	대상	(12)	8.3	16.7	8.3	8.3	33.3	4.17
	대상아님	(388)	55.7	15.5	7.5	5.2	11.3	2.16

<표 5-60> 주거비 부담의 어려움 및 외부지원·서비스 인식 (전체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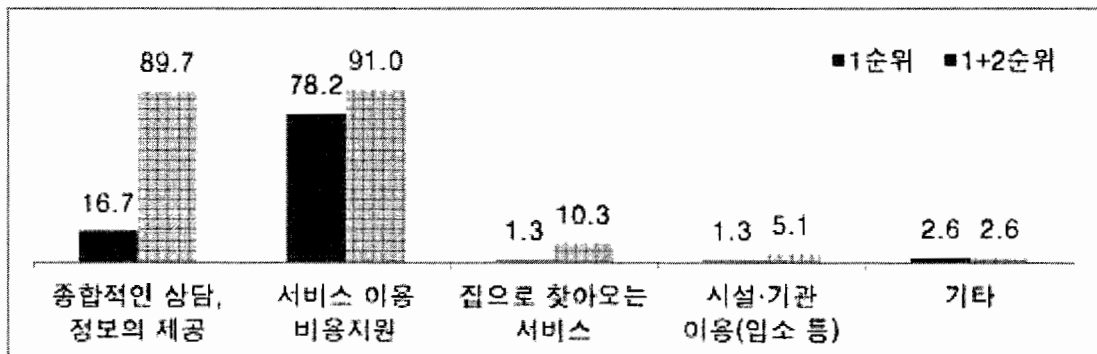
구분	어려움의 정도				외부 지원 필요	외부지원/서비스 필요성 (1순위)				
	어렵지 않음	보통	어려움	6점 평균		상담·정보	이용료 지원	재가 서비스	시설/기관	기타
응답자 전체	69.8	12.8	17.5	2.2	19.5	16.7	78.2	1.3	1.3	2.6
가구규모	1인 가구	58.5	12.2	29.3	2.6	28.0	21.7	73.9	0.0	4.3
	2인 가구	70.0	14.2	15.8	2.2	19.2	21.7	78.3	0.0	0.0
	3인 이상	74.2	12.1	13.6	2.1	16.2	9.4	81.3	3.1	3.1
거주형태	아파트	67.7	15.2	17.0	2.2	19.3	16.3	79.1	2.3	0.0
	단독/다세대 등	72.3	9.6	18.1	2.2	19.8	17.1	77.1	0.0	5.7
주택유형	자가	87.8	7.2	5.0	1.5	5.4	16.7	75.0	0.0	8.3
	전월세/기타	47.5	19.6	33.0	3.1	36.9	16.7	78.8	1.5	0.0

구분		어려움의 정도				외부 지원 필요	외부지원/서비스 필요성 (1순위)				
		어렵지 않음	보통	어려움	6점 평균		상당· 정보	이용료 지원	재가 서비스	시설/ 기관	기타
노인 가구원	있음	74.1	8.6	17.3	2.1	20.4	21.2	78.8	0.0	0.0	0.0
	없음	66.8	15.5	17.6	2.3	18.9	13.3	77.8	2.2	2.2	4.4
장애인	있음	61.9	4.8	33.3	2.7	31.0	7.7	84.6	0.0	0.0	7.7
	없음	70.7	13.7	15.6	2.2	18.2	18.5	76.9	1.5	1.5	1.5
아동	있음	69.4	15.7	14.8	2.2	17.6	15.8	78.9	0.0	5.3	0.0
	없음	69.9	11.6	18.5	2.2	20.2	16.9	78.0	1.7	0.0	3.4
맞벌이	맞벌이	74.4	12.8	12.8	2.1	15.4	8.3	75.0	8.3	8.3	0.0
	외벌이/기타	68.6	12.7	18.6	2.3	20.5	18.2	78.8	0.0	0.0	3.0
경제상황	어려움	50.0	16.4	33.6	3.0	37.1	15.4	78.8	1.9	1.9	1.9
	보통	76.6	12.4	11.0	1.9	12.0	16.0	80.0	0.0	0.0	4.0
	여유로움	96.1	3.9	0.0	1.3	2.0	100.0	0.0	0.0	0.0	0.0
사회경제 지위	상	96.3	3.7	0.0	1.2	3.7	100.0	0.0	0.0	0.0	0.0
	중	78.6	11.1	10.3	1.9	12.2	21.2	75.8	0.0	0.0	3.0
	하	39.2	19.6	41.2	3.4	43.1	11.4	81.8	2.3	2.3	2.3
가처분 가구소득	25%미만	63.0	9.0	28.0	2.6	32.0	21.9	75.0	0.0	0.0	3.1
	25%~75%	67.7	16.4	15.9	2.3	18.9	10.5	81.6	2.6	2.6	2.6
	75%초과	80.8	9.1	10.1	1.8	8.1	25.0	75.0	0.0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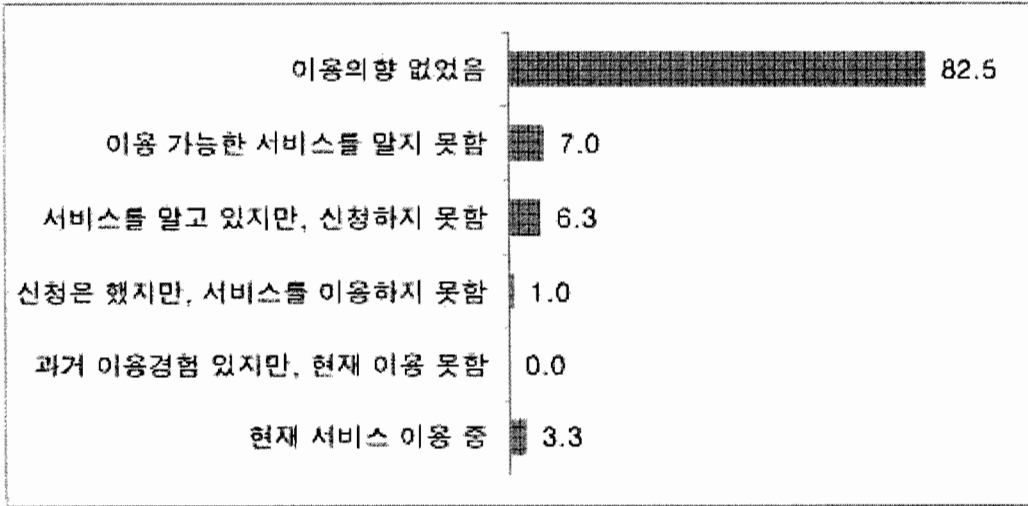
- 주거비 부담의 어려움은 전·월세 과부담, 주택 마련 어려움 등과 관계된 문항으로, 분석결과는 <표 5-59>와 <표 5-60>과 같음.
- 지난 1년 중 주거비 부담의 어려움이 있었는지 조사한 결과 전혀 어렵지 않다는 응답은 절반 정도(54.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어렵지 않다는 응답은 15.5%로, 전체의 69.8%가 주거비 부담에 큰 어려움이 없었다고 응답하였음.
 - 반면, 주거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한 (5점 및 6점) 비율은 17.5% 정도였음.
 - 그러나 주거비 마련의 어려움은 가구의 특성에 따라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었음. <표 5-59>에서 볼 수 있듯이 다세대 주택이나 공공임대아파트 거주가구, 월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등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는 경우에 주거비에 대한 부담이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음.
 - 경제적 형편 역시 중요한 가구특성으로서 주거비 마련 부담의 어려움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음. <표 5-60>에서 보듯, 경제적 상황이 어렵고,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으며, 가구소득이 낮은 응답자들이 상대적으로 주거비 마련의 어려움을 많아 호소하고 있었음. 또한 장애인 가구 역시 어려움을 호소한 비율이 33.3%로 전체 평균(17.5%)보다 훨씬 더 높았음.
 - 6점 척도를 기준으로 한 평균 점수는 2.2점으로 본 조사에 응답한 마포구 지역주민의 주거비 마련 어려움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평균 점수의 차이 역시 주택유형, 장애인 유무, 경제적 형편(경제상황, 사회경제적 지위, 가구소득)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음.(<표 5-60> 참조)

- 결국 주거비 마련의 어려움은 주거취약계층, 장애인, 저소득 가구에서 비교적 심각하게 나타나는 문제상황이었음.
- 주거비 부담과 관련하여 외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에 대해서는 10가구 중 2가구 정도 (19.5%)가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표 5-60> 참조)
- 가구특성에 따른 외부지원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1인 가구, 전월세 거주, 장애인 가구의 응답비율이 높았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가구들(경제상황, 사회경제적 지위, 가처분 소득)에서 외부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았음.
- 저소득 주거취약계층에 속하는 응답자들이 주거비 마련의 어려움이 컸을 뿐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비율이 높았음.
- 주거비 부담에 대한 지원 및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N=78) 구체적인 지원 및 서비스로는 서비스 이용 비용지원을 꼽은 경우가 대부분(78.2%)으로 결국 경제적 측면의 비용문제가 주거비 문제의 핵심임을 보여주었음.([그림 5-80] 참조)
- 한편, 1순위와 2순위 응답을 합산하면 종합적인 상담과 정보제공도 89.7%로 매우 높았음. 주거비용이라는 직접적 문제 외에도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보의 부족도 심각한 수준임을 추론해 볼 수 있음.

[그림 5-80] 필요한 외부지원/서비스 - 주거비 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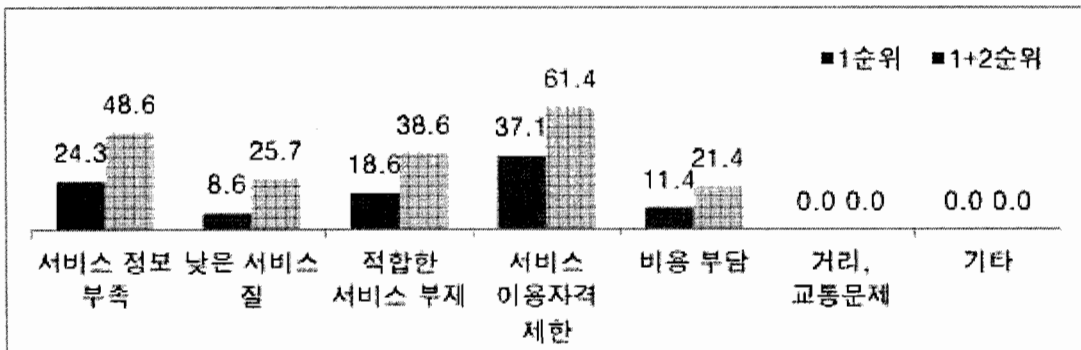


[그림 5-81] 사회보장지원/서비스 인지·신청·이용 경험 - 주거비 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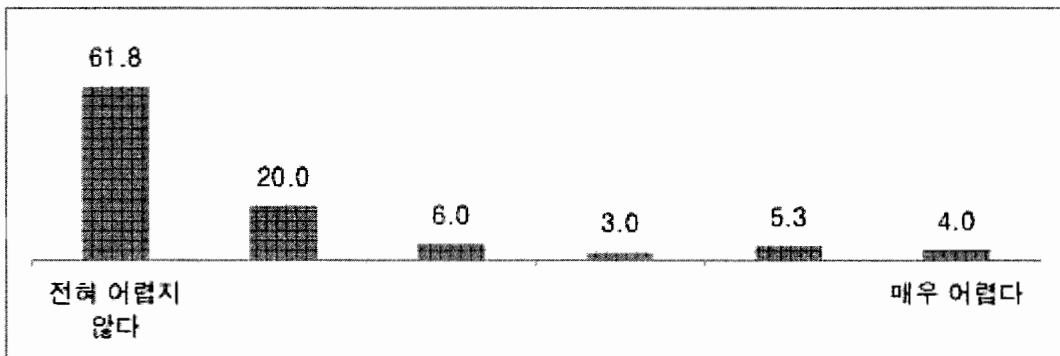
- 주거비 부담의 어려움에 대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의 인지, 신청, 이용 경험과 관련해서는 82.5%가 이용의향이 없었다고 응답한 가운데,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한다는 7.0%, 서비스를 알고 있지만 신청 못함이 6.3% 등으로 조사되었음.([그림 5-81] 참조)
- 주거비 부담과 관련한 지원 및 서비스 인지, 신청, 이용 경험이 있는 경우(N=70) 주요 불편 사항으로는 서비스 이용자격 제한을 언급한 경우가 37.1%로 가장 높았는데, 현행 수혜자격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그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음.([그림 5-82] 참조)

[그림 5-82] 사회보장지원/서비스 관련 불편사항 - 주거비 부담(%)



- 주거환경 열악 관련 어려움은 주택시설 부식, 에너지 공급시설 열악 등과 관계된 문항으로, 분석결과는 [그림 5-83]와 <표 5-61>과 같음.
- 주거환경 열악 관련 어려움 정도에 대해서는 5가구 중 3가구 정도(61.8%)가 전혀 어렵지 않다고 응답하였고, 어렵지 않다는 응답을 포함하면 81.8% 정도가 주거환경에 어려움이 없다고 밝혔음.
- 반면, 주거환경이 열악하다고 응답한 (5점 및 6점) 비율은 9.3% 정도였음.
- 6점 척도를 기준으로 한 평균 점수는 1.8점에 불과하여 본 조사에 응한 마포구 지역주민의 주거환경은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주거환경의 열악과 관련된 어려움 수준은 가구의 특성에 따라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었음. <표 5-61>에서 볼 수 있듯이 어려움의 정도에 대한 응답분포와 이를 바탕으로 한 평균 점수 모두 1인 가구, 단독/다세대 거주, 노인 및 장애인 가구에서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음.
- 경제적 형편 역시 중요한 가구특성으로서, 경제적 상황이 어렵고,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으며, 가구소득이 낮은 응답자들이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의 열악과 관련된 어려움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5-83] 어려움 정도 - 주거환경 열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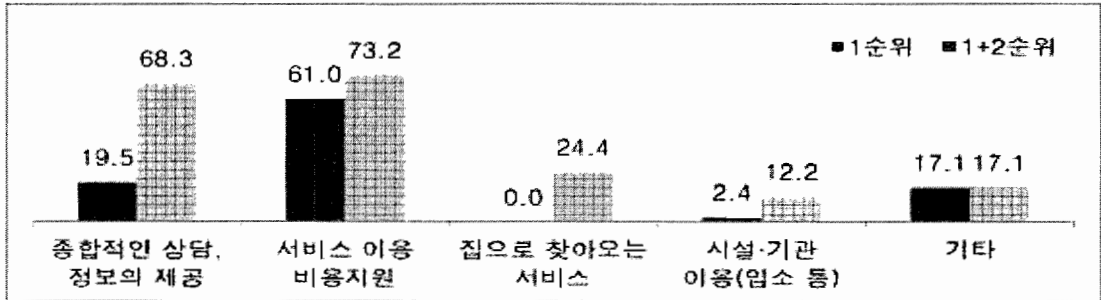


<표 5-61> 주거환경 열악 관련 어려움 및 외부지원·서비스 인식 (전체 가구)

구분	어려움의 정도				외부 지원 필요	외부지원/서비스 필요성 (1순위)					
	어렵지 않음	보통	어려움	6점 평균		상담·정보	이용료 지원	재가 서비스	시설/기관	기타	
응답자 전체	81.8	9.0	9.3	1.8	10.3	19.5	61.0	0.0	2.4	17.1	
가구규모	1인 가구	62.2	18.3	19.5	2.4	19.5	18.8	62.5	0.0	6.3	12.5
	2인 가구	83.3	8.3	8.3	1.8	10.8	15.4	53.8	0.0	0.0	30.8
	3인 이상	88.9	5.6	5.6	1.6	6.1	25.0	66.7	0.0	0.0	8.3
거주형태	아파트	87.9	5.8	6.3	1.6	5.4	16.7	83.3	0.0	0.0	0.0
	단독/다세대 등	74.0	13.0	13.0	2.1	16.4	20.7	51.7	0.0	3.4	24.1
주택유형	자가	86.4	6.3	7.2	1.6	8.1	16.7	50.0	0.0	5.6	27.8
	전월세/기타	76.0	12.3	11.7	2.1	12.8	21.7	69.6	0.0	0.0	8.7
노인	있음	72.2	13.6	14.2	2.1	17.3	25.0	60.7	0.0	3.6	10.7
가구원	없음	88.2	5.9	5.9	1.6	5.5	7.7	61.5	0.0	0.0	30.8
장애인	있음	64.3	9.5	26.2	2.5	28.6	16.7	58.3	0.0	0.0	25.0
	없음	83.8	8.9	7.3	1.7	8.1	20.7	62.1	0.0	3.4	13.8
아동	있음	93.5	2.8	3.7	1.5	4.6	0.0	100.0	0.0	0.0	0.0
	없음	77.4	11.3	11.3	1.9	12.3	22.2	55.6	0.0	2.8	19.4
맞벌이	맞벌이	91.0	3.8	5.1	1.6	6.4	0.0	60.0	0.0	0.0	40.0
	외벌이/기타	79.5	10.2	10.2	1.9	11.2	22.2	61.1	0.0	2.8	13.9
경제상황	어려움	66.4	16.4	17.1	2.3	19.3	14.8	74.1	0.0	0.0	11.1
	보통	88.5	5.7	5.7	1.6	6.2	30.8	30.8	0.0	7.7	30.8
	여유로움	96.1	2.0	2.0	1.3	2.0	0.0	100.0	0.0	0.0	0.0
사회경제 지위	상	100.0	0.0	0.0	1.0	0.0	0.0	0.0	0.0	0.0	0.0
	중	89.3	5.5	5.2	1.6	5.9	31.3	31.3	0.0	6.3	31.3
	하	56.9	20.6	22.5	2.6	24.5	12.0	80.0	0.0	0.0	8.0
가치분 가구소득	25%미만	63.0	18.0	19.0	2.4	23.0	21.7	56.5	0.0	4.3	17.4
	25%~75%	87.6	6.5	6.0	1.7	7.0	14.3	64.3	0.0	0.0	21.4
	75%초과	88.9	5.1	6.1	1.5	4.0	25.0	75.0	0.0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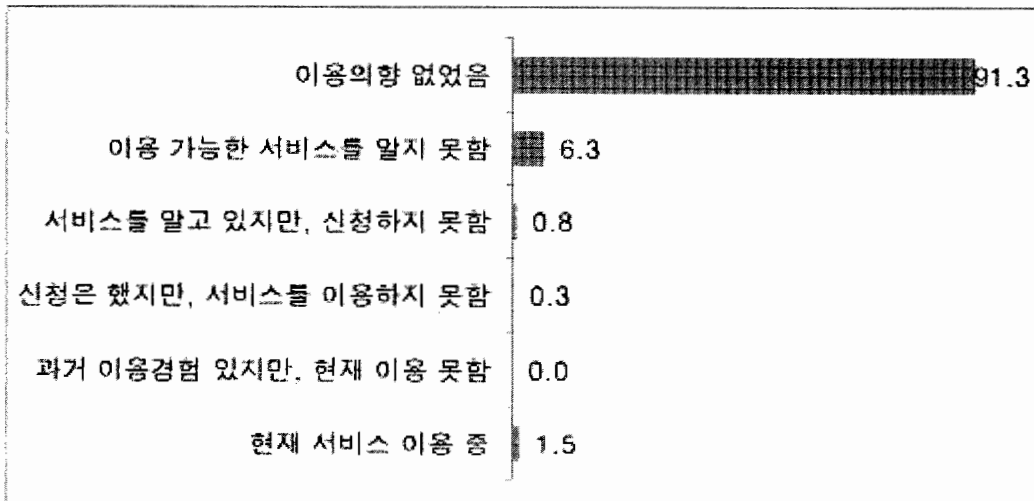
- 주거환경 열악과 관련하여 외부 지원 및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10가구 중 1가구 정도(10.3%)였고, 나머지 89.8%은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표 5-61> 참조)
- 가구특성에 따른 외부지원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앞의 주거환경 어려움 분석과 마찬가지로 1인 가구, 전월세 거주, 노인 및 장애인 가구,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가구들(경제상황, 사회 경제적 지위, 가치분 소득)에서 외부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결국 저소득 주거취약계층에 속하는 응답자들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외부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비율이 더 높았음.

[그림 5-84] 필요한 외부지원/서비스 - 주거환경 열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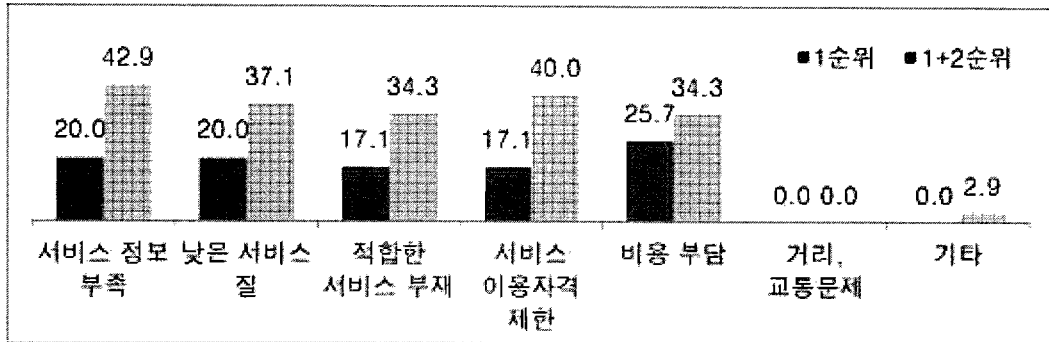


- 주거환경 열악함과 관련하여 지원 및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N=41) 구체적으로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로는 서비스 이용 비용지원을 꼽은 경우가 61.0%로 매우 많았음.([그림 5-84] 참조)
- 주거환경 열악 관련 어려움에 대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의 인지, 신청, 이용 경험에서는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함이 91.3%로 조사되었고, 이용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함이 6.3%로 나타났음.([그림 5-85] 참조)
- 주거환경 열악과 관련하여 해당 지원 및 서비스 경험 시 불편사항으로는(N=35) 비용 부담, 서비스 정보 부족, 낮은 서비스 질, 적합한 서비스 부재, 서비스 이용자격 제한 등이 엇비슷한 크기로 고루 나타났음.([그림 5-86] 참조)

[그림 5-85] 사회보장지원/서비스 인지·신청·이용 경험 - 주거환경 열악(%)



[그림 5-86] 사회보장지원/서비스 관련 불편사항 - 주거환경 열악(%)



- <표 5-62>는 주택의 상태와 거주지역의 환경에 대한 문항 응답결과를 정리하여 분석한 것임.
-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상태는 집의 구조물, 방수, 난방, 환기, 채광, 방음, 안전성(재난, 재해), 화재 안전성, 방범 등 9가지 항목에 대한 합산점수(4점 만점)를 평균한 것으로, 4점에 가까울수록 상태가 양호하다는 것임.
- 주택상태의 전반적 만족도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를 1점 매우 불만족 ~ 4점 매우 만족의 4점 척도로 측정된 항목임.
- 거주지역의 환경은 각종 편의시설, 의료시설, 공공관서, 문화·여가시설, 대중교통 등의 접근성, 주차, 보행안전, 교육환경, 치안, 소음, 쓰레기 처리, 대기오염, 이웃과의 관계 등 13개 항목을 망라한 합산점수(4점 만점)를 산출한 후, 이를 평균한 것으로, 4점에 가까울수록 상태가 양호하다는 것임.
- 주거환경의 전반적 만족도는 4점 척도로 평가한 것으로, 1점 매우 불만족 ~ 4점 매우 만족으로 구성된 단일 항목의 척도임.

<표 5-62> 주택 및 주거환경 만족도 (전체 가구)

구분	거주하고 있는 주택 상태 및 만족도				거주지역 환경 만족도				
	주택상태 항목합계		전반적 만족도		주거환경 항목합계		전반적 만족도		
	평균	t/F	평균	t/F	평균	t/F	평균	t/F	
응답자 전체	3.2	--	3.1	--	3.1	--	3.1	--	
가구규모	1인 가구	3.2	0.59	3.1	0.98	3.1	0.21	3.1	1.13
	2인 가구	3.2		3.1		3.1			
	3인 이상	3.2		3.2		3.0			
거주형태	아파트	3.4	39.12***	3.3	35.33***	3.1	0.00	3.0	0.13
	단독/다세대 등	3.0		2.9		3.1			
주택유형	자가	3.3	4.55*	3.2	4.83*	3.1	1.69	3.1	0.09
	전월세/기타	3.2		3.1		3.0			
노인	있음	3.1	4.67*	3.1	1.38	3.1	0.26	3.1	1.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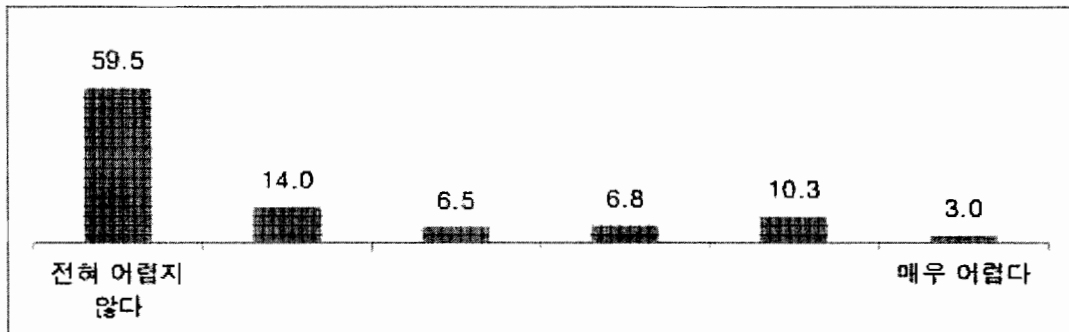
구분		거주하고 있는 주택 상태 및 만족도				거주지역 환경 만족도			
		주택상태 항목합계		전반적 만족도		주거환경 항목합계		전반적 만족도	
		평균	t/F	평균	t/F	평균	t/F	평균	t/F
가구원	없음	3.3		3.2		3.1		3.0	
장애인	있음	3.2	0.23	3.0	0.74	3.1	0.11	3.0	0.01
	없음	3.2		3.1		3.1			
아동	있음	3.3	1.20	3.2	0.82	3.1	1.30	3.0	5.44*
	없음	3.2		3.1		3.1			
맞벌이	맞벌이	3.2	0.31	3.1	0.29	3.0	1.39	3.0	0.69
	외벌이/기타	3.2		3.1		3.1			
경제상황	어려움	3.0	13.77***	2.9	12.00***	3.0	8.66***	3.0	8.59***
	보통	3.3		3.2		3.1		3.0	
	여유로움	3.4		3.3		3.3		3.3	
사회경제 지위	상	3.3	29.86***	3.4	18.64***	3.3	12.99***	3.3	7.01***
	중	3.3		3.2		3.1		3.1	
	하	2.9		2.8		2.9		3.0	
가처분 가구소득	25%미만	3.1	6.76**	3.0	3.53*	3.1	2.79	3.0	1.87
	25%~75%	3.2		3.1		3.1		3.0	
	75%초과	3.4		3.3		3.2		3.1	

- 전체 가구의 평균 점수는 주택상태 항목합계 3.2점, 주택상태의 전반적 만족도 3.1점, 주거환경 항목합계 3.1점, 주거환경 전반적 만족도 3.1점으로 본 조사의 응답자들은 대체로 주택 및 주거환경에 만족하고 있었음. 그러나 가구의 특성에 따른 평균점수의 차이가 존재하는바, 이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음.
- 주택상태의 평균점수는 아파트 및 자가 거주, 비노인 가구, 경제적 형편이 양호한 가구(경제상황, 사회경제적 지위, 가처분 가구소득)에서 더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였음.
 - 주택상태의 전반적 만족도에 대한 평균 차이 검증도 매우 유사하여, 거주형태, 주택유형, 경제상황, 사회경제적 지위, 가구소득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였음.
 - 주거환경 합계 점수의 평균차이 검증은 경제상황과 사회경제적 지위 두 변수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경제상황이 양호하고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주거환경에 대한 항목별 만족도가 더 높았음.
 - 주거환경의 전반적 만족도 역시 아동유무 및 경제상황,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그 내용은 대동소이함.
 -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주택상태에 대한 만족도는 전통적 주거취약계층과 저소득층에서 낮았고 아파트에 거주하는 중산층에서 높았음.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 역시 경제수준에 따른 차이를 보임. 결국, 마포구 지역의 주거환경도 쾌적한 중산층 아파트 단지가 양호하고, 주거취약계층이 밀집된 지역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ii 문화 및 여가

- 문화여가 활동 관련 어려움은 문화여가활동의 참여기회 부족, 문화여가시설 열악 등에 관한 문항으로, 분석결과는 [그림 5-87] 및 <표 5-63>과 같음.
- 전체 가구의 응답 분포를 보면 전혀 어렵지 않다는 응답이 59.5%, 어렵지 않다는 응답은 14.0%로 이 둘을 합산한 응답비율은 73.5%였음. 반면, 어렵다는 응답 10.3%, 매우 어렵다는 3.0%로 나타났음.
- 6점 척도를 기준으로 한 평균 점수는 2.0점으로 대체적으로 문화 및 여가생활과 관련된 어려움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 어려움의 정도에 대한 응답분포와 이에 바탕한 평균 점수의 가구특성별 차이는 크지 않았음. 다만, 경제상황이 어렵고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응답자들이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표출하는 경우가 많았음.
- 특이한 것은 다른 영역에 대한 응답결과와는 달리 아파트 거주 및 맞벌이 가구의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크게 조사되었다는 것임. 맞벌이 가구의 경우 바쁜 일상으로 인하여 문화나 여가를 즐길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고, 아파트의 경우 주거환경은 우수하나 단지 내 문화여가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됨.

[그림 5-87] 어려움 정도 - 문화여가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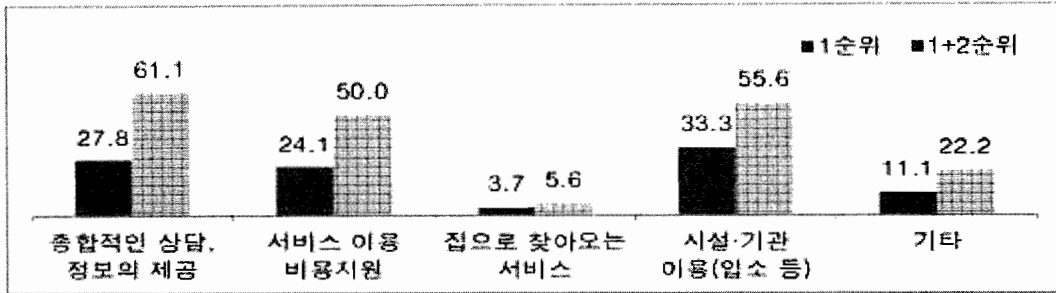
- 문화여가 활동을 위한 외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에 대해서는 13.5%가 필요성을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86.5%는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함. 외부지원 필요성에 대한 가구특성별 차이는 크지 않았음.<표 5-63> 참조)
- 문화여가 활동을 위한 지원 및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N=54) 구체적인 지원 및 서비스로는 1순위 응답 기준, 시설·기관 이용이 33.3%로 가장 높았는데, 문화여가 특성 상 공공시설이나 유관기관을 이용하는 형태가 많기 때문으로 보임. 그 밖에 종합적인 상담/정보 제공(27.8%), 서비스 이용 비용지원(24.1%) 등의 순으로 조사됨.([그림 5-88] 참조)

<표 5-63> 문화·여가 활동 관련 어려움 및 외부지원·서비스 인식 (전체 가구)

구분	어려움의 정도				외부 지원 필요	외부지원/서비스 필요성 (1순위)					
	어렵지 않음	보통	어려움	6점 평균		상담· 정보	이용료 지원	재가 서비스	시설/ 기관	기타	
응답자 전체	73.5	13.3	13.3	2.0	13.5	27.8	24.1	3.7	33.3	11.1	
가구규모	1인 가구	78.0	13.4	8.5	1.8	8.5	28.6	28.6	0.0	42.9	0.0
	2인 가구	72.5	10.8	16.7	2.1	15.0	22.2	38.9	11.1	16.7	11.1
	3인 이상	72.2	14.6	13.1	2.1	14.6	31.0	13.8	0.0	41.4	13.8
거주형태	아파트	64.6	17.5	17.9	2.3	16.6	21.6	24.3	5.4	40.5	8.1
	단독/다세대 등	84.7	7.9	7.3	1.7	9.6	41.2	23.5	0.0	17.6	17.6
주택유형	자가	73.3	14.0	12.7	2.0	12.7	28.6	14.3	0.0	46.4	10.7
	전월세/기타	73.7	12.3	14.0	2.1	14.5	26.9	34.6	7.7	19.2	11.5
노인	있음	72.0	11.9	16.1	2.0	11.3	26.3	26.3	5.3	31.6	10.5
가구원	없음	70.0	13.4	16.6	2.1	14.2	28.6	22.9	2.9	34.3	11.4
장애인	있음	78.6	14.3	7.1	1.8	11.9	40.0	40.0	0.0	0.0	20.0
	없음	72.9	13.1	14.0	2.1	13.7	26.5	22.4	4.1	36.7	10.2
아동	있음	72.2	16.7	11.1	2.1	16.7	33.3	11.1	0.0	44.4	11.1
	없음	74.0	12.0	14.0	2.0	12.3	25.0	30.6	5.6	27.8	11.1
맞벌이	맞벌이	64.1	17.9	17.9	2.3	16.7	7.7	23.1	15.4	38.5	15.4
	외벌이/기타	75.8	12.1	12.1	2.0	12.7	34.1	24.4	0.0	31.7	9.8
경제상황	어려움	70.0	13.6	16.4	2.2	13.6	26.3	26.3	5.3	21.1	21.1
	보통	72.7	13.9	13.4	2.1	15.3	25.0	25.0	3.1	43.8	3.1
	여유로움	86.3	9.8	3.9	1.5	5.9	66.7	0.0	0.0	0.0	33.3
사회경제 지위	상	77.8	14.8	7.4	1.7	7.4	50.0	0.0	0.0	0.0	50.0
	중	76.0	12.2	11.8	2.0	14.4	28.2	23.1	5.1	38.5	5.1
	하	65.7	15.7	18.6	2.3	12.7	23.1	30.8	0.0	23.1	23.1
가처분 가구소득	25%미만	78.0	15.0	7.0	1.8	11.0	18.2	36.4	0.0	36.4	9.1
	25%~75%	70.6	12.4	16.9	2.2	15.4	32.3	19.4	6.5	29.0	12.9
	75%초과	74.7	13.1	12.1	1.9	12.1	25.0	25.0	0.0	41.7	8.3

- 문화여가 활동의 어려움에 대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의 인지, 신청, 이용 경험에서는 5가구 중 4개 가구(80.0%)에서 이용의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고, 현재 서비스 이용은 2.3%로 조사됨.([그림 5-89] 참조)
- 인지, 신청, 이용 경험이 있는 경우(N=80) 주된 불편사항은 1순위 기준으로 거리/교통문제(26.3%), 서비스 정보 부족(25.0%), 적합한 서비스 부재(22.5%) 등이 엇비슷하게 지적되었고, 1순위와 2순위 합산을 기준으로 서비스 정보 부족이 58.8%로 가장 높았음.([그림 5-89] 참조) 문화 및 여가 분야의 경우 특정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로 인해 접근 가능성 문제가 특히 두드러진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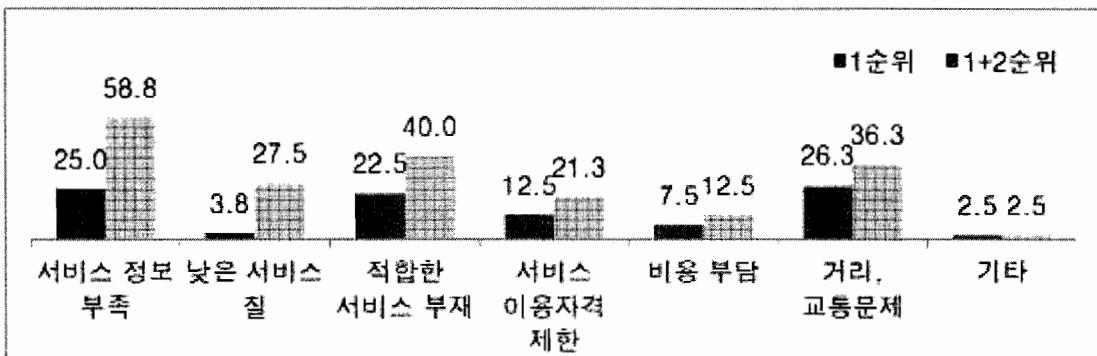
[그림 5-88] 필요한 외부지원/서비스 - 문화여가 활동(%)



[그림 5-89] 사회보장지원/서비스 인지·신청·이용 경험 - 문화여가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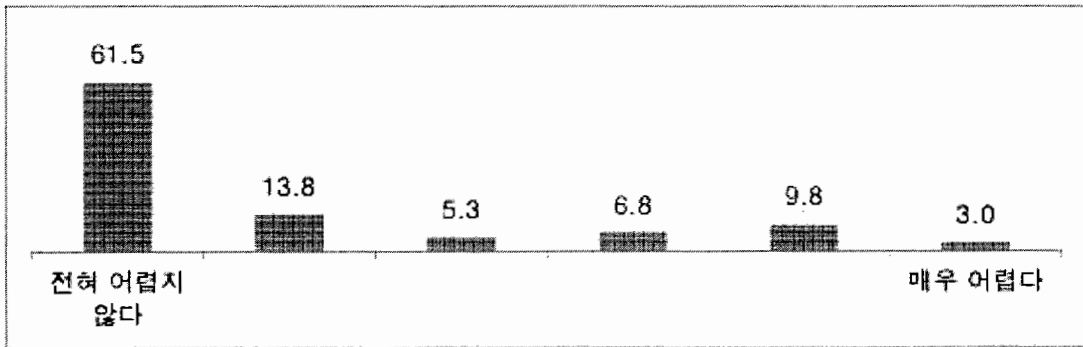


[그림 5-90] 사회보장지원/서비스 관련 불편사항 - 문화여가 활동(%)



- 실제로 마포구 지역주민들의 문화·여가활동은 영화 관람에 편중되어 있으며, 창의적 문화예술활동 경험은 거의 없는 편임.(앞의 <표 5-18> 및 <표 5-19> 참조)
- 지난 1년 간(2017. 4. 1. ~ 2018. 3. 31.) 평균 관람 빈도는 영화 3.66회, 박물관 0.75회, 연극/뮤지컬 0.47회, 미술관 0.45회, 음악/연주회 0.44회, 스포츠 0.28회 등임.(<표 5-18> 참조)
- 각종 예술행사에 직접 참여한 경험은, 서양음악 발표회 2.8%, 미술 전시회 2.0%, 문학행사 개최 1.8%, 연극 발표회 1.8% 등으로 전체적으로 매우 낮게 조사됨. 다만, 각 예술행사에 대한 만족도 평가에서는 대부분 만족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남.(<표 5-19> 참조)

[그림 5-91] 어려움 정도 · 체육 활동(%)



- 체육 활동 관련 어려움은 체육활동 참여기회 부족, 체육시설 열악 등에 관한 문항으로, 분석결과는 [그림 5-91] 및 <표 5-64>와 같음.
- 지난 1년 중 가구 내에서 체육활동과 관련된 어려움이 있었는지 조사한 결과 61.5%는 전혀 어렵지 않다고 응답했고, 어렵지 않다는 응답은 13.8%로 이 둘을 합산한 응답비율은 75.3%였음. 반면, 어렵다는 응답 9.8%, 매우 어렵다는 3.0%로 나타났음.
- 6점 척도를 기준으로 한 평균 점수는 2.0점으로 대체적으로 체육활동과 관련된 어려움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 어려움의 정도에 대한 응답분포와 이에 바탕한 평균 점수의 가구특성별 차이는 크지 않았음. 다만, 앞의 문화·여가활동과 마찬가지로 아파트 거주 및 맞벌이 가구의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크게 조사되었으며, 그 이유도 대동소이할 것으로 추측됨.

<표 5-64> 체육 활동 관련 어려움 및 외부지원·서비스 인식 (전체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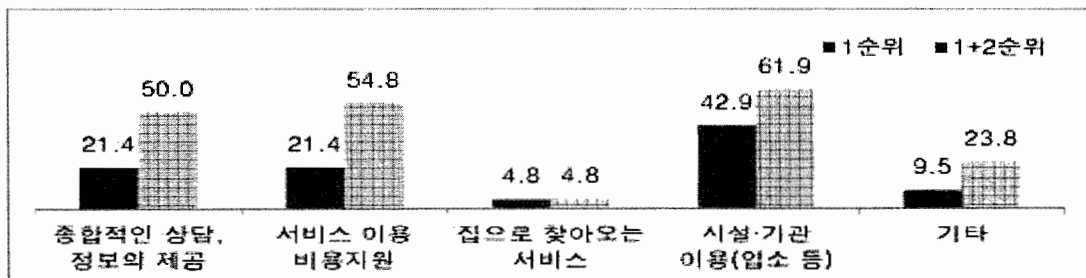
구분	어려움의 정도				외부 지원 필요	외부지원/서비스 필요성 (1순위)				
	어렵지 않음	보통	어려움	6점 평균		상담·정보	이용료 지원	제가 서비스	시설/기관	기타
응답자 전체	75.3	12.0	12.8	2.0	10.5	21.4	21.4	4.8	42.9	9.5

구분		어려움의 정도				외부 지원 필요	외부지원/서비스 필요성 (1순위)				
		어렵지 않음	보통	어려움	6점 평균		상담· 정보	이용료 지원	재가 서비스	시설/ 기관	기타
가구규모	1인 가구	76.8	12.2	11.0	1.9	9.8	37.5	0.0	0.0	62.5	0.0
	2인 가구	73.3	10.8	15.8	2.1	10.8	15.4	30.8	15.4	38.5	0.0
	3인 이상	75.8	12.6	11.6	2.0	10.6	19.0	23.8	0.0	38.1	19.0
거주형태	아파트	68.6	14.3	17.0	2.2	12.1	14.8	22.2	7.4	44.4	11.1
	단독/다세대 등	83.6	9.0	7.3	1.7	8.5	33.3	20.0	0.0	40.0	6.7
주택유형	자가	73.8	13.1	13.1	2.0	12.2	18.5	18.5	0.0	51.9	11.1
	전월세/기타	77.1	10.6	12.3	2.0	8.4	26.7	26.7	13.3	26.7	6.7
노인 가구원	있음	72.2	12.3	15.4	2.1	10.5	29.4	11.8	5.9	52.9	0.0
	없음	77.3	11.8	10.9	1.9	10.5	16.0	28.0	4.0	36.0	16.0
장애인	있음	73.8	14.3	11.9	2.0	2.4	100.0	0.0	0.0	0.0	0.0
	없음	80.8	9.2	10.0	2.0	9.0	19.5	22.0	4.9	43.9	9.8
아동	있음	78.7	13.0	8.3	1.9	12.0	23.1	15.4	0.0	38.5	23.1
	없음	74.0	11.6	14.4	2.0	9.9	20.7	24.1	6.9	44.8	3.4
맞벌이	맞벌이	69.2	12.8	17.9	2.2	12.8	10.0	30.0	20.0	30.0	10.0
	외벌이/기타	76.7	11.8	11.5	1.9	9.9	25.0	18.8	0.0	46.9	9.4
경제상황	어려움	72.9	12.9	14.3	2.1	10.0	28.6	21.4	7.1	35.7	7.1
	보통	74.2	11.5	14.4	2.0	12.9	18.5	22.2	3.7	48.1	7.4
	여유로움	86.3	11.8	2.0	1.5	2.0	0.0	0.0	0.0	0.0	100.0
사회경제 지위	상	81.5	14.8	3.7	1.6	3.7	0.0	0.0	0.0	0.0	100.0
	중	77.5	11.1	11.4	1.9	12.2	21.2	21.2	6.1	45.5	6.1
	하	67.6	13.7	18.6	2.2	7.8	25.0	25.0	0.0	37.5	12.5
가처분 가구소득	25%미만	76.0	14.0	10.0	1.9	9.0	33.3	11.1	0.0	55.6	0.0
	25%~75%	75.1	10.4	14.4	2.1	11.9	16.7	20.8	8.3	41.7	12.5
	75%초과	74.7	13.1	12.1	1.9	9.1	22.2	33.3	0.0	33.3	11.1

□ 체육활동에 관한 외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에 대해서는 10.5%가 그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89.5%는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함. 외부지원 필요성에 대한 가구특성별 차이는 크지 않았음.(<표 5-64> 참조)

○ 체육활동 지원 및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N=42)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로는 시설·기관 이용이 42.9%로 가장 높아(1순위 기준), 문화·여가 분야와 마찬가지로 시설 등 인프라 여건을 갖추는 문제가 관건이라고 판단됨.([그림 5-92] 참조)

[그림 5-92] 필요한 외부지원/서비스 - 체육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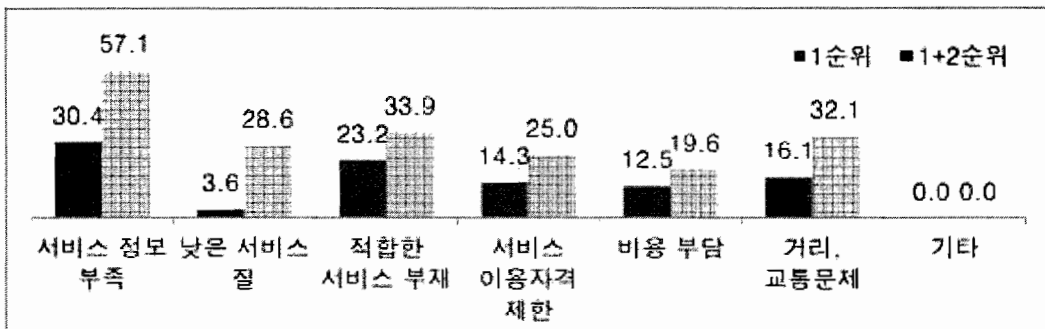
[그림 5-93] 사회보장지원/서비스 인지·신청·이용 경험 - 체육 활동(%)



□ 체육활동의 어려움에 대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의 인지, 신청, 이용 경험과 관련해서는 86.0%가 이용의향이 없었다고 밝힌 가운데, 6.3%는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한다고 응답하였고 5.3%는 신청하지 못했다고 응답하였음.([그림 5-93] 참조)

○ 체육활동 지원 및 서비스 인지, 신청, 이용 경험이 있는 경우(N=56) 주된 불편사항으로는, 1순위 응답을 기준으로 서비스 정보부족(30.4%), 적합한 서비스 부재(23.2%), 거리/교통문제(16.1%), 서비스 이용자격 제한(14.3%), 비용 부담(12.5%) 등의 순으로 지적되었음.([그림 5-9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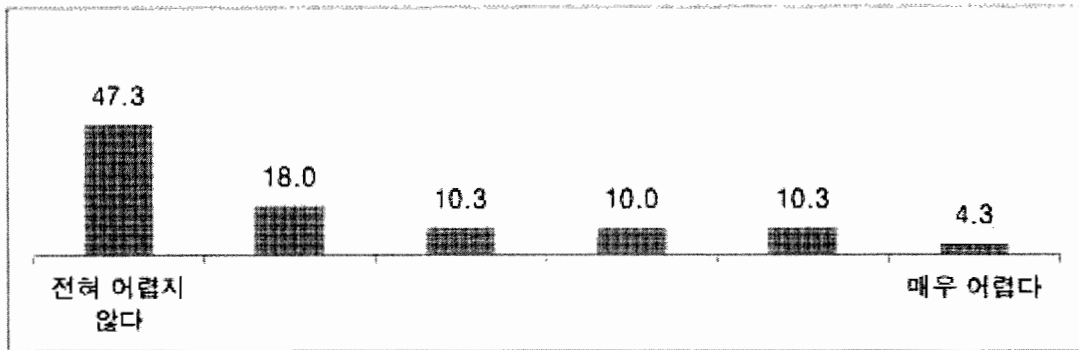
[그림 5-94] 사회보장지원/서비스 관련 불편사항 - 체육 활동(%)



iii 환 경

□ 환경오염 관련 어려움은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질오염 등에 관한 문항으로, 분석결과는 [그림 5-95] 및 <표 5-65>와 같음.

[그림 5-95] 어려움 정도 - 환경오염(%)



- 지난 1년 중 환경오염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었는지 조사한 결과 전혀 어렵지 않다는 응답이 절반 미만(47.3%)으로, 다른 영역들의 응답비율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음. 반면, 어렵다는 응답 10.3%, 매우 어렵다는 4.3%로 나타났으며, 3점과 4점에 해당하는 중립적 의견(보통)도 2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상당수의 응답 가구에서 환경 문제에 대한 불만과 걱정이 있음을 시사함.
- 6점 척도를 기준으로 한 평균 점수도 2.3점으로 다른 영역에 비해서 다소 높은 편이었음.
- 어려움의 정도에 대한 응답분포와 이에 바탕한 평균 점수의 가구특성별 차이는 대체로 크지 않았으나, 3인 이상 가구, 아동가구, 고소득 가수에서 어려움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조사되었음. 즉, 아동을 둔 중산층 가구에서 환경 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상대적으로 많이 호소하고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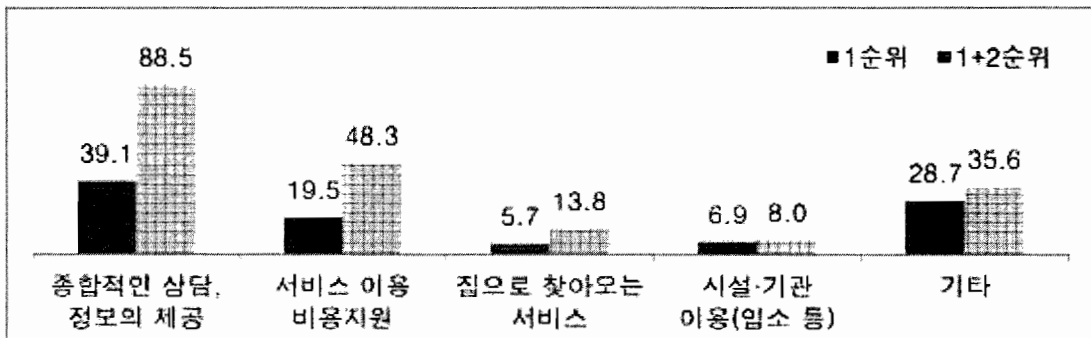
<표 5-65> 환경오염 관련 어려움 및 외부지원·서비스 인식 (전체 가구)

구분	어려움의 정도				외부 지원 필요	외부지원/서비스 필요성 (1순위)					
	어렵지 않음	보통	어려움	6점 평균		상담·정보	이용료 지원	제가 서비스	시설/기관	기타	
응답자 전체	65.3	20.3	14.5	2.3	21.8	39.1	19.5	5.7	6.9	28.7	
가구규모	1인 가구	78.0	15.9	6.1	1.8	12.2	30.0	20.0	0.0	20.0	30.0
	2인 가구	69.2	19.2	11.7	2.1	21.7	46.2	19.2	3.8	3.8	26.9
	3인 이상	57.6	22.7	19.7	2.6	25.8	37.3	19.6	7.8	5.9	29.4
거주형태	아파트	61.4	22.4	16.1	2.4	25.1	37.5	21.4	7.1	5.4	28.6
	단독/다세대 등	70.1	17.5	12.4	2.1	17.5	41.9	16.1	3.2	9.7	29.0
주택유형	자가	64.3	20.8	14.9	2.3	23.5	32.7	19.2	1.9	9.6	3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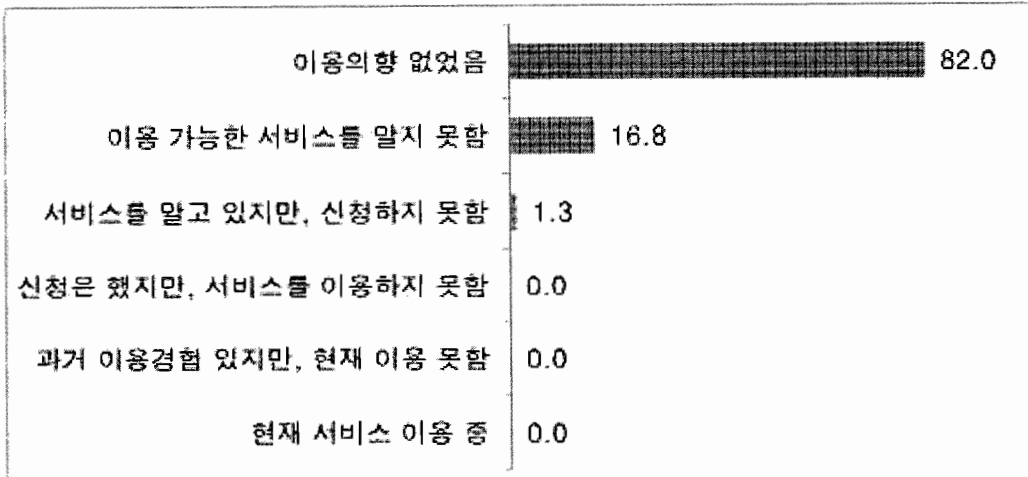
구분		어려움의 정도				외부 지원 필요	외부지원/서비스 필요성 (1순위)				
		어렵지 않음	보통	어려움	6점 평균		상담·정보	이용료 지원	재가 서비스	시설/기관	기타
노인	전월세/기타	66.5	19.6	14.0	2.3	19.6	48.6	20.0	11.4	2.9	17.1
	있음	72.2	18.5	9.3	2.0	17.9	48.3	13.8	3.4	6.9	27.6
가구원	없음	60.5	21.4	18.1	2.5	24.4	34.5	22.4	6.9	6.9	29.3
장애인	있음	78.6	11.9	9.5	1.9	14.3	16.7	33.3	16.7	0.0	33.3
	없음	63.7	21.2	15.1	2.4	22.6	40.7	18.5	4.9	7.4	28.4
아동	있음	60.2	15.7	24.1	2.6	25.0	40.7	22.2	7.4	3.7	25.9
	없음	67.1	21.9	11.0	2.2	20.5	38.3	18.3	5.0	8.3	30.0
맞벌이	맞벌이	65.4	19.2	15.4	2.3	24.4	42.1	10.5	10.5	10.5	26.3
	외벌이/기타	65.2	20.5	14.3	2.3	21.1	38.2	22.1	4.4	5.9	29.4
경제상황	어려움	67.1	19.3	13.6	2.3	17.1	25.0	25.0	8.3	4.2	37.5
	보통	62.7	21.5	15.8	2.4	23.9	44.0	20.0	2.0	8.0	26.0
	여유로움	70.6	17.6	11.8	2.1	25.5	46.2	7.7	15.4	7.7	23.1
사회경제 지위	상	74.1	18.5	7.4	2.0	22.2	66.7	0.0	16.7	16.7	0.0
	중	64.6	20.7	14.8	2.3	22.5	41.0	19.7	3.3	6.6	29.5
	하	64.7	19.6	15.7	2.3	19.6	25.0	25.0	10.0	5.0	35.0
가처분 가구소득	25%미만	78.0	15.0	7.0	1.9	12.0	41.7	25.0	0.0	8.3	25.0
	25%~75%	61.7	24.9	13.4	2.4	22.4	40.0	13.3	6.7	4.4	35.6
	75%초과	58.4	17.8	23.8	2.6	29.7	36.7	26.7	6.7	10.0	20.0

- 환경오염과 관련한 외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에 대해서는 5가구 중 1개 가구(21.8%)에서 그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가구 내 아동이 있는 경우와 고소득 가구에서 상대적으로 필요성을 더 크게 인식하는 상황이었음.<표 5-65> 참조
- 환경오염 관련 지원 및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N=87) 구체적으로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로는 종합적인 상담, 정보 제공을 꼽은 경우가 1순위 기준 39.1%, 1+2순위 기준 88.5%로 매우 많았음.([그림 5-96] 참조)
 - 이러한 결과는 주민들이 환경오염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즉각적이고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림 5-96] 필요한 외부지원/서비스 - 환경오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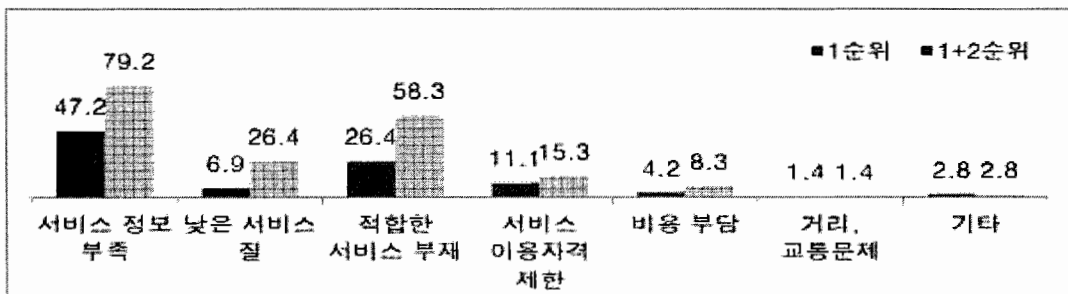


[그림 5-97] 사회보장지원/서비스 인지·신청·이용 경험 - 환경오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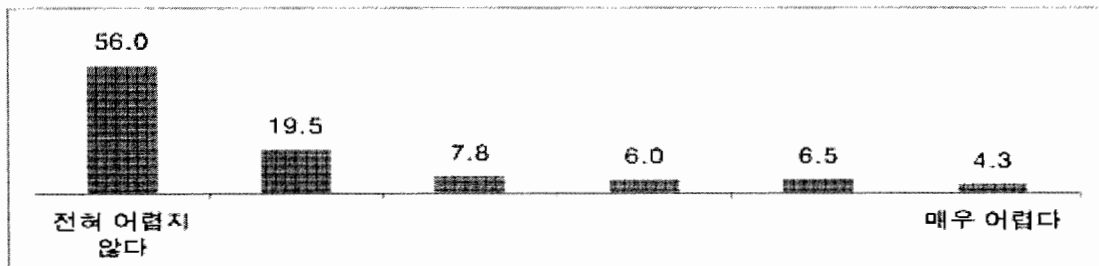


- 환경오염 어려움에 대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의 인지, 신청, 이용 경험으로는 82.0%가 이용의향이 없었다고 응답했으며, 16.8%는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한다고 응답하였음.([그림 5-97] 참조)
- 환경오염 관련 지원 및 서비스 인지, 신청, 이용 경험이 있는 경우(N=72) 주된 불편사항으로는, 1순위 응답을 기준으로, 서비스 정보 부족(47.2%), 적합한 서비스 부재(26.4%), 서비스 이용자격 제한(11.1%)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그림 5-98] 참조).

[그림 5-98] 사회보장지원/서비스 관련 불편사항 - 환경오염(%)



[그림 5-99] 어려움 정도 - 생활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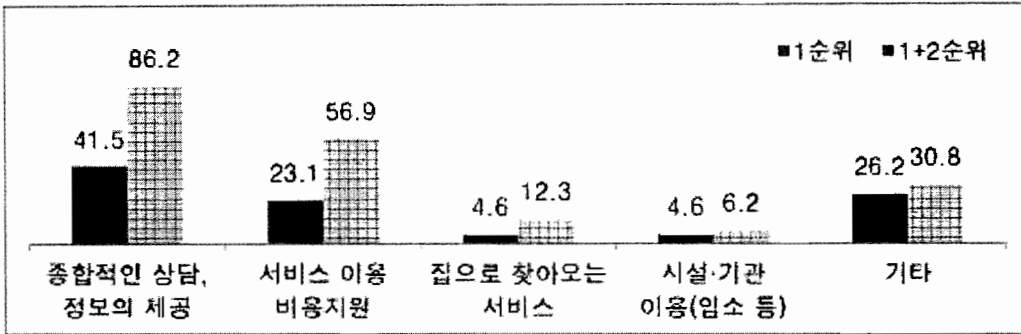
□ 생활환경 관련 어려움은 생활폐기물 및 상하수도 처리 미흡, 소음 등에 관한 문항으로, 분석결과는 [그림 5-99] 및 <표 5-66>과 같음.

- 전체 가구의 응답 분포를 보면 전혀 어렵지 않다는 응답이 56.0%였고, 어렵지 않다는 19.5%로, 어렵지 않다는에 해당하는 1점~2점 응답비율이 75.5%였음. 반면, 어렵다와 매우 어렵다는 응답을 합하면 10.8%였음.
- 6점 척도를 기준으로 한 평균 점수는 2.0점으로 생활환경과 관련된 어려움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가구특성별 응답분포 및 평균점수의 차이는 크지 않았음.
- 생활환경과 관련된 외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에 대해서는 16.3%가 그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특성별로는 아동이 있는 가구와 고소득 가구에서 전체 평균 보다 다소 높은 응답비율을 보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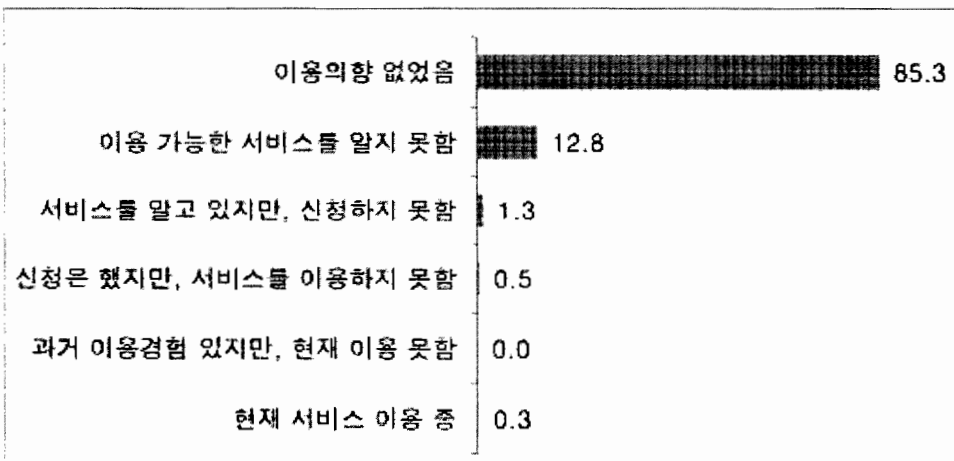
<표 5-66> 생활환경 관련 어려움 및 외부지원·서비스 인식 (전체 가구)

구분	어려움의 정도				외부 지원 필요	외부지원/서비스 필요성 (1순위)					
	어렵지 않음	보통	어려움	6점 평균		상담·정보	이용료 지원	재가 서비스	시설/기관	기타	
응답자 전체		75.5	13.8	10.8	2.0	16.3	41.5	23.1	4.6	4.6	10.8
가구규모	1인 가구	74.4	17.1	8.5	1.9	8.5	71.4	0.0	0.0	14.3	14.3
	2인 가구	79.2	9.2	11.7	1.9	15.8	42.1	31.6	0.0	0.0	26.3
	3인 이상	73.7	15.2	11.1	2.1	19.7	35.9	23.1	7.7	5.1	28.2
거주형태	아파트	76.7	14.8	8.5	2.0	15.7	37.1	31.4	5.7	2.9	22.9
	단독/다세대 등	74.0	12.4	13.6	2.1	16.9	46.7	13.3	3.3	6.7	30.0
주택유형	자가	74.2	12.2	13.6	1.8	18.6	34.1	22.0	4.9	4.9	34.1
	전월세/기타	77.1	15.6	7.3	1.8	13.4	54.2	25.0	4.2	4.2	12.5
노인 가구원	있음	66.3	22.7	11.0	2.1	16.9	48.3	17.2	0.0	6.9	27.6
	없음	66.7	24.8	8.5	1.9	12.8	36.1	27.8	8.3	2.8	25.0
장애인	있음	73.8	16.7	9.5	2.0	16.7	42.9	42.9	0.0	0.0	14.3
	없음	75.7	13.4	10.9	2.0	16.2	41.4	20.7	5.2	5.2	27.6
아동	있음	75.9	10.2	13.9	2.1	19.4	33.3	28.6	4.8	4.8	28.6
	없음	75.3	15.1	9.6	2.0	15.1	45.5	20.5	4.5	4.5	25.0
맞벌이	맞벌이	78.2	10.3	11.5	2.0	17.9	35.7	14.3	7.1	7.1	35.7
	외벌이/기타	74.8	14.6	10.6	2.0	15.8	43.1	25.5	3.9	3.9	23.5
경제상황	어려움	72.1	17.1	10.7	2.1	13.6	26.3	31.6	0.0	5.3	36.8
	보통	76.6	12.0	11.5	2.0	18.2	50.0	21.1	2.6	5.3	21.1
	여유로움	80.4	11.8	7.8	1.9	15.7	37.5	12.5	25.0	0.0	25.0
사회경제 지위	상	88.9	7.4	3.7	1.8	11.1	33.3	33.3	33.3	0.0	0.0
	중	76.8	12.2	11.1	1.8	17.0	45.7	21.7	4.3	6.5	21.7
	하	68.6	19.6	11.8	1.8	15.7	31.3	25.0	0.0	0.0	43.8
가치분 가구소득	25%미만	73.3	16.8	9.9	1.9	11.9	50.0	25.0	0.0	8.3	16.7
	25%~75%	75.1	14.9	10.0	1.8	16.9	44.1	23.5	0.0	2.9	29.4
	75%초과	77.8	9.1	13.1	1.7	19.2	31.6	21.1	15.8	5.3	2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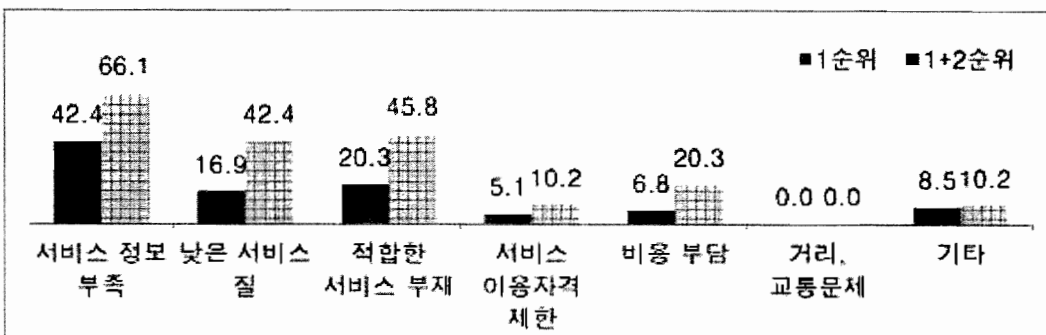
[그림 5-100] 필요한 외부지원/서비스 생활환경(%)



[그림 5-101] 사회보장지원/서비스 인지·신청·이용 경험 - 생활환경(%)



[그림 5-102] 사회보장지원/서비스 관련 불편사항 - 생활환경(%)



- 생활환경 관련 지원 및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N=65) 구체적으로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로는, 1순위 응답을 기준으로 종합적인 상담/정보 제공(41.5%)과 서비스 이용 비용지원(23.1%) 요구가 상대적으로 많았음.([그림 5-100] 참조)
- 생활환경 관련 어려움에 대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의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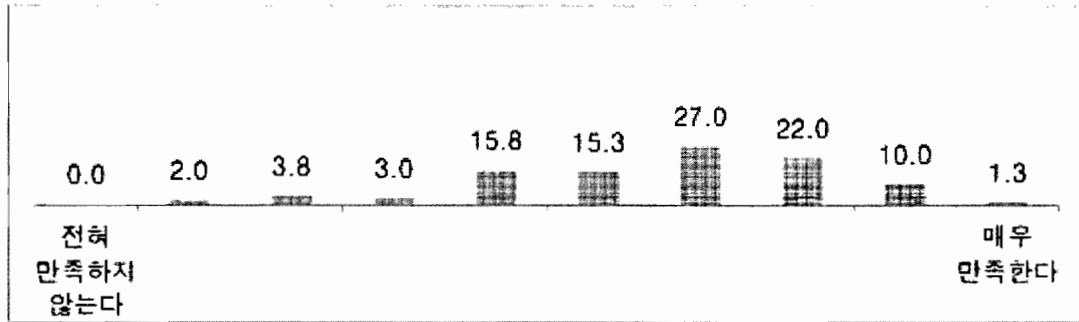
지, 신청, 이용 경험으로는 85.3%가 이용의향 없었다고 밝혔고, 12.8%는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한다고 응답하였음.([그림 5-101] 참조)

- 생활환경 관련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및 서비스 인지, 신청, 이용 경험이 있는 경우 (N=59) 불편사항으로는, 1순위 응답을 기준으로 서비스 정보 부족(42.4%), 적합한 서비스 부재(20.3%), 낮은 서비스 질(16.9%), 비용 부담(6.8%), 서비스 이용자격 제한(5.1%) 등의 순으로 지적되었음.([그림 5-10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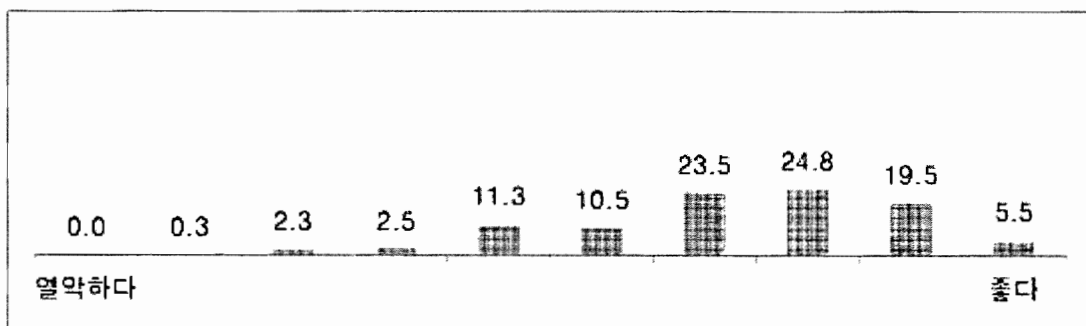
㉞ 마포구 지역주민의 만족도와 사회보장서비스 욕구

i 삶의 만족도와 지역사회 인식

[그림 5-103]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그림 5-104] 지역사회 만족도 - 거주지역에 대한 전반적 평가(%)



□ 마포구 지역주민 욕구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10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는 [그림 5-103] 및 <표 5-67>과 같음.

- 삶의 만족도에 대한 전체 응답자들의 분포를 살펴보면 10점 만점에 7점을 준 응답자들이 전체의 27.0%, 8점으로 응답한 비율이 22.0%로 나타나는 등 대체로 삶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주류를 이루었음.

<표 5-67>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와 지역사회 인식 (전체 가구)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¹					지역사회 만족도 ²					
	105 점	607 점	800 점	평균	t/F	105 점	607 점	800 점	평균	t/F	
응답자 전체	24.5	42.3	33.3	6.7	-	16.3	34.0	49.8	7.3	-	
가구규모	1인 가구	39.0	32.9	28.0	6.1	9.74***	15.9	28.0	56.1	7.4	0.43
	2인 가구	30.8	41.7	27.5	6.5		18.3	30.8	50.8	7.3	
	3인 이상	14.6	46.5	38.9	7.0		15.2	38.4	46.5	7.2	
거주형태	아파트	21.1	43.5	35.4	6.7	1.78	16.1	38.6	45.3	7.2	2.97
	단독/다세대 등	28.8	40.7	30.5	6.5		16.4	28.2	55.4	7.5	
주택유형	자가	22.6	36.7	40.7	6.9	8.70**	16.7	29.0	54.3	7.4	2.56
	전월세/기타	26.8	49.2	24.0	6.4		15.6	40.2	44.1	7.2	
노인 가구원	있음	35.2	34.6	30.2	6.3	11.33***	19.1	25.9	54.9	7.4	0.68
	없음	17.2	47.5	35.3	6.9		14.3	39.5	46.2	7.2	
장애인	있음	42.9	28.6	28.6	6.1	5.27*	16.7	31.0	52.4	7.4	0.13
	없음	22.3	43.9	33.8	6.7		16.2	34.4	49.4	7.3	
아동	있음	13.0	49.1	38.0	7.0	6.28*	13.9	40.7	45.4	7.1	1.21
	없음	28.8	39.7	31.5	6.5		17.1	31.5	51.4	7.3	
맞벌이	맞벌이	16.7	38.5	44.9	7.0	5.34*	17.9	32.1	50.0	7.3	0.01
	외벌이/기타	26.4	43.2	30.4	6.6		15.8	34.5	49.7	7.3	
경제상황	어려움	45.7	35.7	18.6	5.8	35.19***	19.3	33.6	47.1	7.2	3.13*
	보통	14.4	48.3	37.3	7.0		16.3	37.3	46.4	7.2	
	여유로움	7.8	35.3	56.9	7.5		7.8	21.6	70.6	7.8	
사회경제 지위	상	0.0	33.3	66.7	7.9	41.21***	0.0	7.4	92.6	8.4	7.58***
	중	16.2	46.9	36.9	6.9		16.2	40.6	43.2	7.2	
	하	52.9	32.4	14.7	5.5		20.6	23.5	55.9	7.3	
가처분 가구소득	25%미만	42.0	39.0	19.0	5.9	18.34***	14.0	27.0	59.0	7.6	4.07*
	25%~75%	22.4	44.3	33.3	6.7		18.4	41.3	40.3	7.1	
	75%초과	11.1	41.4	47.5	7.3		14.1	26.3	59.6	7.5	

주 1. '귀하께서는 요즘 자신의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라는 문항에 대하여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1점에서 '매우 만족한다' 10점까지의 10점 척도로 구성됨.

2 '귀하께서 거주하고 계신 지역은 다른 지역과 비교해볼 때 살기에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문항에 대하여 '열악하다' 1점부터 '좋다' 10점까지로 구성된 10점 척도임.

- 현재의 삶에 불만족 한다는 1점에서 5점 사이 응답자 비율은 전체의 24.5%였는데, 1인 가구, 노인 가구, 장애인 가구,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응답자들의 비율이 높았음.
- 반면 삶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은 8점에서 10점 응답자 비율은 전체 기준 33.3%였는데, 3인 이상 가구, 자가 거주, 아동 가구, 맞벌이, 경제적 형편이 양호한 가구에서 그 비율이 높았음.
- 10점 척도를 바탕으로 가구 특성별 삶의 만족도 평균의 차이를 분석하면, 가구규모, 주택유형, 노인 유무, 장애인 유무, 맞벌이 여부, 경제상황, 사회경제적 지위, 가구소득 등 많은 변수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되었음.
- 대체적인 결과는 빈도분석결과와 같았는데, 3인 이상 가구, 아동 가구, 자가 거주, 맞벌이 및 경제적 형편이 양호한 경우 삶의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던 반면, 1인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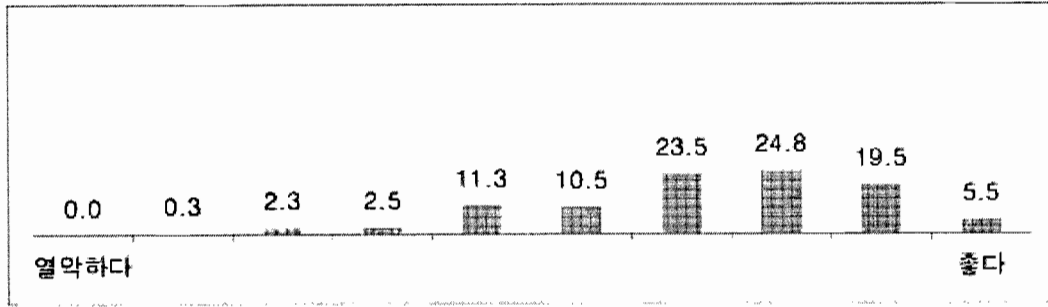
전월세 거주, 노인 가구, 장애인 가구, 외벌이 가구, 경제적 형편이 열악한 경우 삶의 만족도가 유의하게 낮았음.

- 결국 삶의 만족도는 가구원의 구성 (가구원 수, 노인·아동·장애인 유무), 가구내의 역할 (맞벌이 여부), 경제적 형편 (자가 거주 여부, 경제상황, 사회경제적 지위, 가처분 가구소득)에 따라 통계적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음.
- 노인, 장애인, 저소득 가구 등 전통적인 취약계층 뿐 아니라, 1인 가구 및 외벌이 가구에 게 적절한 돌봄, 고용, 문화·여가 서비스를 제공하여 전반적인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노력이 요구됨.

□ 마포구 지역주민 욕구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이 다른 지역과의 비교를 통하여 현 거주지역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그림 5-104] 및 <표 5-67> 참조)

- 먼저, 지역사회 만족도에 대한 전체 응답자들의 분포를 살펴보면 10점 만점에 8점을 준 응답자들이 전체의 24.8%, 7점으로 응답한 비율이 23.5%, 9점 응답도 19.5%에 이르는 등 마포구 지역주민들의 지역사회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음.
- 지역사회 만족도가 불만족에 속하는 1점에서 5점 사이 응답자 비율은 전체의 16.3%였는데, 2인 가구, 노인 가구, 경제상황이 어렵고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응답자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반면 지역사회 만족도가 매우 높은 8점에서 10점 응답자 비율은 전체의 절반(49.8%)에 달하였는데, 1인 가구, 단독/다세대 거주, 노인 가구, 장애인 가구, 경제적 형편이 양호한 응답자들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비율을 보였음.
- 10점 척도를 바탕으로 가구 특성별 지역사회 만족도 평균의 차이를 분석하면, 경제상황, 사회경제적 지위, 가처분 가구소득의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되었음. 경제상황과 사회경제적 지위는 상층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지만,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상층과 하층이 비슷하게 높았던 반면 중간층의 만족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음.
- 종합하면, 삶의 만족도 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열악한 삶의 조건을 가진 1인·장애인·노인·단독/다세대 가구에서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이 양호하였고, 경제적 형편이 양호한 계층도 그러했던 반면, 중간소득계층은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였음. 취약계층이 다른 지역보다 마포구의 지역사회보장 여건을 상대적으로 양호하게 평가한 것으로 보임.

[그림 5-105] 거주지역에 대한 전반적 평가(%)



ii 사회보장서비스 이용경험 및 만족도

□ 마포구 지역주민들이 실제 지역사회보장서비스를 이용한 경험과 그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는 <표 5-68>과 같음.

- 지역아동센터나 방과후 돌봄교실 등 아동돌봄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자 비율은 5.5%에 불과하였으며, 만족도는 불만족 비율이 높아 5점 척도 평균이 2.0점에 그치고 있었음.
- 노인재가서비스, 노인복지관 등 성인돌봄 관련시설을 이용한 비율은 7.5%였으며, 만족도는 매우 불만족과 불만족이 90%로 만족도 평균은 1.6점에 불과하였음.
- 기초생활유지는 맞춤형 급여제도나 긴급생계지원과 같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근간으로 한 서비스로, 이용자 비율은 4.5%, 만족도 평균은 2.2점으로 조사되었음.

<표 5-68> 사회보장서비스 이용 경험 및 만족도 (전체 가구)

	이용 경험		사회보장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5점 평균
	이용	미이용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아동돌봄서비스	5.5	94.5	27.3	50.0	22.7	0.0	0.0	2.0
노인돌봄서비스	7.5	92.5	50.0	40.0	6.7	3.3	0.0	1.6
기초생활유지	4.5	95.5	50.0	16.7	5.6	22.2	5.6	2.2
보호안전 서비스	0.0	100.0	0.0	0.0	0.0	0.0	0.0	0.0
신체적 건강서비스	37.3	62.8	41.6	43.0	8.1	4.7	2.7	1.8
정신적 건강서비스	2.5	97.5	50.0	20.0	20.0	0.0	10.0	2.0
평생교육, 청소년교육지원	2.8	97.3	27.3	45.5	18.2	9.1	0.0	2.1
구인·구직, 창업지원	4.0	96.0	31.3	37.5	6.3	12.5	12.5	2.4
주거복지서비스	10.8	89.3	39.5	48.8	4.7	4.7	2.3	1.8
문화여가서비스	20.0	80.0	40.0	37.5	10.0	8.8	3.8	2.0
생활폐기물 등 환경서비스	100.0	0.0	19.0	45.0	22.8	11.5	1.8	2.3

- 보호안전은 가정폭력과 관련된 서비스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가정폭력상담소의 이용경험을 질문하였으나, 본 조사의 표집에 이용자가 포함되지 않았음.
- 신체적 건강서비스는 보건소나 생활체육시설 이용경험과 관련된 것으로, 이용자 비율이 37.3%로 조사대상 서비스 중 두 번째로 높은 이용률을 보였음. 그러나 만족도는 매우 불만족이나 불만족 비율이 높아 평균점수는 1.8점에 그치고 있었음.
- 정신적 건강서비스는 정신건강상담 이용과 관련된 것으로, 이용자 비율은 2.5%에 불과하였으며, 만족도 평균은 2.0점이었음.
- 평생교육 및 청소년 교육지원서비스 이용경험자 비율은 2.8%로 낮았으며, 이용만족도는 평균 2.1점이었음.
- 구인·구직, 창업지원 등 일자리 관련 지역사회보장서비스를 이용한 응답자 비율은 4.0%였으며, 만족도 평균은 2.4점으로 조사대상 서비스 중 가장 높은 이용자 만족도를 보였음. 그러나, 만족도 평균 2.4점은 중립 3점에 미치지 못하고 있었음.
- 주거급여, 임대주택, 주거비용자 등을 포함하는 주거복지서비스 이용자 비율은 10.8%로 다른 영역의 서비스들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었음. 그러나 이용자 만족도는 평균 1.8점으로 다른 영역들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더 낮았음.
- 문화여가시설 및 문화프로그램 이용과 관련된 문화여가서비스 이용자 비율은 20.0%로 조사대상 서비스 중 세 번째로 높았으나, 이용자 만족도는 평균 2.0점에 그쳤음.
- 생활폐기물 처리, 상하수도 및 소음과 관련된 환경서비스는 마포구 지역주민 모두가 이용하고 있는 기초 공공서비스로, 만족도 수준은 2.3점으로 나타났음.
- 전반적으로 볼 때, 도시기반 생활환경 서비스를 제외한 지역사회보장서비스의 이용률과 이용자 만족도 모두 매우 낮은 수준이었음. 이는 지역사회보장서비스의 대부분이 여전히 저소득 취약계층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는 전통적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결과로 보임.

iii 사회보장서비스 욕구

- 본 마포구 지역주민 복지욕구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할 때 중점을 두어야 할 영역을 질문하였고, 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그림 5-105]에 제시되어 있음.
- 먼저, 향후 마포구에서 제4기 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할 때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1순위 영역으로 건강·의료를 꼽은 응답자가 18.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기초생활유지 및 사회관계로 13.8%였으며, 환경(12.8%)과 주거영역(12.3%)에 응답한 비율도 10%를 상회하였음.
- 이외에 아동 돌봄과 보호·안전(각 8.8%), 교육(8.0%)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고, 문화·여가는 1순위 응답으로는 가장 낮은 3.0%로 조사되었음.

- 1순위에서 3순위까지 모든 응답을 합산한 기준으로는, 건강·의료(50.0%), 환경(48.5%), 주거(38.0%)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기초생활유지와 아동 돌봄에 대한 필요성은 1순위 응답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표 5-69>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영역 (1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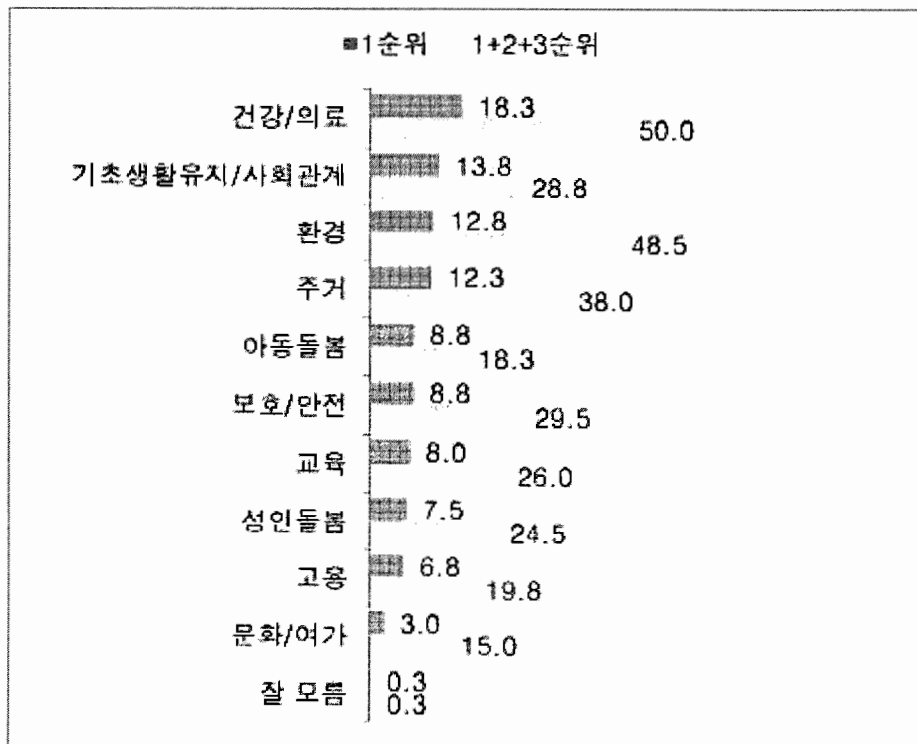
		아동 돌봄	성인 돌봄	기초 생활	보호 안전	건강 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여가	환경
응답자 전체		8.8	7.5	13.8	8.8	18.3	8.0	6.8	12.3	3.0	12.8
가구규모	1인 가구	2.4	12.2	25.6	3.7	25.6	0.0	6.1	7.3	4.9	12.2
	2인 가구	5.8	11.7	14.2	7.5	24.2	1.7	7.5	11.7	3.3	12.5
	3인 이상	13.2	3.0	8.6	11.7	11.7	15.2	6.6	14.7	2.0	13.2
거주형태	일반 아파트	12.7	2.8	8.8	11.0	19.9	12.2	4.4	11.0	3.3	13.8
	공공임대 아파트	2.4	11.9	33.3	0.0	4.8	2.4	9.5	23.8	0.0	11.9
	단독/다세대 등	6.3	11.4	14.2	8.5	19.9	5.1	8.5	10.8	3.4	11.9
주택유형	자가	10.9	7.3	13.2	7.7	21.8	9.5	5.0	7.3	3.6	13.6
	전월세/기타	6.1	7.8	14.5	10.1	14.0	6.1	8.9	18.4	2.2	11.7
노인 가구원	있음	5.0	16.1	21.1	5.0	26.1	2.5	3.1	6.8	1.2	13.0
	없음	11.3	1.7	8.8	11.3	13.0	11.8	9.2	16.0	4.2	12.6
장애인	있음	0.0	9.5	28.6	2.4	23.8	4.8	2.4	21.4	0.0	7.1
	없음	9.8	7.3	12.0	9.5	17.6	8.4	7.3	11.2	3.4	13.4
아동	있음	20.6	0.0	5.6	15.0	6.5	22.4	2.8	13.1	0.9	13.1
	없음	4.5	10.3	16.8	6.5	22.6	2.7	8.2	12.0	3.8	12.7
맞벌이	맞벌이	16.9	3.9	5.2	10.4	15.6	11.7	6.5	14.3	2.6	13.0
	외벌이/기타	6.8	8.4	15.8	8.4	18.9	7.1	6.8	11.8	3.1	12.7
경제상황	어려움	7.9	12.9	27.9	5.0	16.4	5.7	5.7	12.1	0.7	5.7
	보통	8.7	4.3	6.7	11.1	16.3	10.6	6.7	14.9	4.3	16.3
	여유로움	11.8	5.9	3.9	9.8	31.4	3.9	9.8	2.0	3.9	17.6
사회경제 지위	상	11.1	3.7	0.0	11.1	29.6	7.4	7.4	3.7	3.7	22.2
	중	8.9	7.4	6.7	10.4	17.0	10.4	7.8	14.1	3.3	14.1
	하	7.8	8.8	36.3	3.9	18.6	2.0	3.9	9.8	2.0	6.9
가처분 가구소득	25%미만	5.0	17.0	30.0	4.0	25.0	2.0	4.0	8.0	1.0	4.0
	25%~75%	10.0	5.5	8.5	9.5	15.9	7.5	9.0	14.9	2.0	17.4
	75%초과	10.2	2.0	8.2	12.2	16.3	15.3	5.1	11.2	7.1	12.2

□ 그러나 전체 응답자가 아닌 가구의 특성을 고려할 경우, 각 응답자가 처한 인구·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중점영역에 대한 우선순위를 달리하고 있었음.<표 5-69> 참조)

- 먼저, 가구규모에 따른 차이로, 1인 가구는 기초생활과 건강·의료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3인 이상 가구는 아동 돌봄과 교육, 주거를 우선순위로 꼽은 비율이 높았음.
- 거주형태에 따른 차이도 극명히 드러났음. 저소득층이 밀집된 공공임대아파트 거주 응답자의 경우 기초생활보장과 주거, 성인돌봄에 우선순위를 둔 응답이 많았던 반면, 일반아파트 거주자는 건강·의료, 아동 돌봄, 교육영역에 대한 관심을 표하는 비율이 높았음.

- 주택유형의 경우에도 자가 거주 응답자는 건강·의료를 1순위로 둔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전월세 거주자의 경우 주거를 최우선 순위에 두었음.
- 노인 및 장애인 가구는 전통적 취약계층으로 기초생활과 건강·의료에 우선순위를 두는 응답비율이 높았고, 노인 가구는 이에 더하여 성인돌봄을, 장애인 가구는 주거의 문제를 꼽은 응답자도 많았음.
- 아동이 있는 가구의 경우, 교육과 아동돌봄을 가장 우선순위에 놓아야 한다는 응답비율이 높았음.
-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아동 돌봄을 1순위 응답으로 한 비율이 높았음.
- 경제상황이 어렵고,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으며, 가구소득이 낮은 응답자들은 기초생활을 우선순위로 두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음.
- 반면, 경제상황이 양호하고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편으로 응답한 경우, 건강·의료를 1순위로 두는 경향이 많았고, 고소득 가구의 응답자는 건강·의료와 함께 교육을 우선순위로 두는 응답이 많았음.

[그림 5-106] 제4기 사회보장계획 수립 시 중점영역(%)



㉔ 마포구 지역주민 욕구조사 요약

□ 마포구 지역주민욕구조사 결과, 전체적으로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위협하는 위협요인은 크지 않은 상황이었음.

- 각종 사회적 위협에 대한 어려움 수준은 대부분 낮게 조사되었고, 이러한 어려움과 관련된 외부지원이나 서비스의 필요성도 크게 제기되지 않았음.
- 주택 및 거주 환경, 의료·건강, 문화·여가, 지역인식 등의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진 영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그러나, 지역주민이 인지한 사회적 위협과 관련된 어려움과 서비스 욕구 수준은 조사한 영역별로 상이하었음.

- 돌봄(아동, 장애아동, 성인돌봄)과 관련된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특히동·노인·장애인 등 돌봄 대상이 가구원일 때 어려움을 호소하는 비율이 더욱 높았음.
- 돌봄 외에도 신체적 건강, 고용, 주거, 문화여가, 환경오염의 영역에서는 어려움을 표시한 응답자 비율이 20%를 넘어 상대적으로 높았음.
- 외부지원·서비스의 필요성을 통하여 측정된 사회보장서비스 욕구수준도 사회적 위협관련 어려움의 수준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음. 아동돌봄, 장애인돌봄, 환경오염 등에 대한 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0% 이상이었고, 일상생활유지, 기초생활, 취·창업, 주거비, 신체적 건강, 생활환경 등도 비교적 높은 응답비율을 보인 항목들이었음.

□ 또한 응답 가구의 인구·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사회적 위협에 대한 인식 및 서비스 욕구 수준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었음.

- 전통적인 취약계층인 노인 가구, 장애인 가구, 저소득 가구, 한부모 및 조손가구 응답자들이 사회적 위협과 관련된 어려움과 외부지원·서비스의 필요성을 호소하는 비율이 훨씬 더 높았으며, 현재 이용하고 있는 아동·노인·장애인에 대한 돌봄 서비스가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상대적으로 많았음.
- 반면, 경제적 형편이 양호한 대다수의 응답자들은 사회적 위협과 관련된 어려움이나 서비스의 욕구가 매우 낮은 수준이었음.
- 이러한 인구·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차이는 사회보장서비스 욕구가 계층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 저소득 취약계층은 돌봄, 건강, 기초생활, 주거, 취·창업, 학교교육 등 대부분의 영역에서 상

대적으로 높은 욕구를 표출하고 있었던 반면,

- 맞벌이 가구 및 아파트 거주 응답자들은 문화·여가나 평생교육에 상대적으로 높은 어려움이나 욕구수준을 보였으며, 아동가구 및 중산층 가구에서는 미세먼지 등과 같은 환경오염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음.
- 무엇보다 필요한 외부지원이나 서비스의 종류에 대한 응답에서도 가구특성에 따른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우 이용료지원에 대한 욕구가 가장 컸던 반면, 중산층 응답자들은 상담 및 정보제공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경우가 더 많았음.

□ 마포구 지역주민의 만족도 역시 가구의 특성에 따라 상이한 양상을 보였음.

- 노인, 장애인, 저소득 가구 등 전통적인 취약계층 뿐 아니라, 1인 가구 및 외벌이 가구의 삶의 만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그러나, 상대적으로 열악한 삶의 조건을 가진 1인·장애인·노인·단독/다세대 가구에서 지역사회의 인식에 대한 인식이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취약계층이 삶의 만족도는 낮으나, 다른 지역보다 마포구의 지역사회보장 여건을 상대적으로 양호하게 평가한 것으로 보임.

□ 본 욕구조사 응답자들의 지역사회보장서비스 이용률은 도시기반 생활환경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서비스 영역에서 매우 저조하였고, 이용자의 만족도도 낮았음.

- 이는 지역사회보장서비스의 대부분이 여전히 저소득 취약계층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는 전통적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결과로 보임.
- 나아가,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할 때 중점을 두어야 할 영역으로는 건강·의료, 환경, 주거에 대한 응답이 높았음.(1순위에서 3순위 합산 기준)
- 무엇보다 응답자의 인구·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중점영역에 대한 우선순위를 달리하고 있었음에 주목하여야 함. 대체로 저소득 취약계층은 기초보장, 주거, 성인돌봄을, 아동가구 및 일반 중산층 가구는 건강·의료, 아동돌봄, 교육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응답이 높았음.

㉞ 마포구 지역주민 욕구조사 결과 시사점

i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필요

□ 장애인 및 노인 가구, 1인 가구, 빈곤 및 저소득 가구, 한부모 및 조손가구는 사회복지 영

역에서 전통적인 취약계층으로 분류됨. 특히 이러한 특성들은 상호 교차되는 경우가 많음.
(예, 저소득 노인 1인 가구)

- 마포구 지역주민 욕구조사 응답자 가운데 이러한 저소득 취약계층들은 돌봄의 욕구가 충분히 충족되지 못하여 여전히 어려움을 표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기초생활보장, 건강, 주거와 관련된 어려움도 여전히 실정임.
- 저소득 취약가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지역사회보장서비스의 핵심 대상으로 집중적인 공공 및 민간복지 지원을 받고 있지만, 이들이 처한 어려움을 해소하기에는 아직 불충분한 수준으로 보임.

ii 돌봄 서비스의 양적 확대 및 질적 제고방안 강구

- 마포구 지역주민들의 사회적 위험 관련 어려움은 대체로 크지 않았으나, 아동, 장애아동,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 관련 어려움과 서비스 욕구는 상대적으로 컸음.
- 아동돌봄과 성인돌봄 모두 과거의 저소득층 지원에서 탈피하여 보편적 서비스를 지향하는 과정에 있으며, 이에 따라 중산층의 돌봄 욕구를 상당부분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돌봄관련 지역사회보장서비스의 공급확대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아동 돌봄의 경우 보육과 같은 보편적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과 함께, 양육부담 경감정도가 큰 초등돌봄교실 등 보육 외 부문의 서비스 확대 노력이 필요함.
- 성인돌봄의 경우, 인구의 고령화 및 급속한 가족해체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독거노인에 대한 돌봄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민관협력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함. 아울러, 장애인 돌봄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과 서비스 확대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iii 지역사회보장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강화

- 현재 마포구 지역주민들은 국가나 지자체가 제공하고 있는 사회보장 지원사업 및 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수준이 낮으며, 관련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지 못함.
- 이것은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욕구를 위협하는 요소가 많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원 및 서비스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없는 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음.
- 각종 외부지원이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어떤 프로그램이 제공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임.
- 또한 정신건강 및 약물복용, 가족 내 안전(가정폭력), 가족 및 이웃과의 관계 등의 영역에서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어려움 수준이 극단적으로 낮게 나타났음. 이것은 해당 문제에 대

한 지역주민의 인식 자체가 낮고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외부 개입 자체를 꺼리는 경향 때문으로도 볼 여지가 있음.

iv 생활밀착형 지역사회보장서비스 확대 - 환경, 주차, 소음, 문화여가, 체육

- 지난 수년 간 마포구 곳곳에서 진행된 재개발 사업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주민들은 감소하고, 일반 아파트에 거주하는 중산층 주민들을 증가해 왔음. 생활에 비교적 여유가 있는 중산층 주민들의 경우 직접적인 사회적 위협에 대한 인식보다는 환경, 주차, 소음, 문화·여가, 체육 등 일상생활과 밀착된 지역사회보장서비스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오염을 포함한 환경문제와 주거지역 주변의 소음문제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을 보였음.
- 아동을 둔 응답자들의 경우 환경에 대한 문제인식 수준이 더욱 높았으며, 주택상태에서 층간소음과 같은 방음에 대한 불만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거주환경 만족도에서도 집주변 소음정도에 대한 불만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음. 또한 영화 관람을 제외한 문화·여가 활용 실태도 매우 저조하며, 체육시설의 이용에 있어서도 접근성 문제가 지적되는 등 마포구 지역 내의 관련 인프라 편중 문제도 간과하기 어려움.

v 지역기반 지역사회보장서비스 생태계 구축

- 앞에서 언급한 생활밀착형 지역사회보장서비스 확대를 위해서는 지역기반의 주민참여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마포구 지역의 급속한 주거 환경 변화 속에서 건강한 마을 형성이 주민주도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관의 협력적 지원이 필요함.
- 환경, 소음, 주차, 복지시설 설치, 지역 간 공공인프라 격차 문제는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관리 없이는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어려움. 갈등관리와 지역공동체 구축을 위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됨.
- 나아가, 은둔해 있는 취약계층을 발견하고, 가정폭력, 약물남용, 정신건강 등의 문제를 가진 주민들을 지역사회보장서비스 체계로 편입시킬 수 있는 지역기반 복지생태계 구축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2) 포커스 그룹 인터뷰

-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파악될 수 없는 욕구와 실태를 심도있게 분석하기 위하여 실시하였음.
- 마포구 지역사회보장계획 TF팀 논의 결과, 총 8개 그룹을 선정하였음. 8개의 그룹은 영유아 및 아동, 노인, 장애인, 저소득, 다문화 부문의 5개 영역과, 마포구에서 새롭게 주목되는 한부모 여성, 1인 가구, 학교밖 청소년의 3개 영역으로 선정하였음.
- 그간의 지역사회보장계획에서 FGI를 실시해왔던 영유아 및 아동, 노인, 장애인, 저소득, 다문화 영역은 공공과 민간의 공급자들을 중심으로 각 영역별 욕구와 생활실태, 제도적인 환경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하였음.
- 마포구 지역사회보장계획 TF팀 회의를 통하여 주목하여야 할 대상으로 선정된 한부모 여성, 1인 가구, 학교밖 청소년의 경우 공급자가 아닌 서비스 수요자들로 인터뷰대상자들을 섭외하였으며, 이들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마포구에 바라는 점들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를 실시하였음. 각 영역별 인터뷰결과에 따라 추출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분야별 결과

㉞ 영유아 · 아동복지

i 서비스 욕구의 확대 : 가족의 영역까지

-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들의 욕구는 아동에 대한 치료 및 성장·발달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최근 치료와 상담을 넘어 네트워크를 통해 아동을 비롯한 가족의 문제까지 복합적이고 다양한 부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러 분야의 연계된 접근을 원하고 있음.
- 서비스 기관을 이용하는 부모들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데 소개해 줄 수 있느냐?' '여기 가면 무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느냐?' 등 마포구 내의 영유아 관련 서비스 기관에 대한 네트워크 파악 및 정보 접근성에 대한 욕구를 직접적으로 나타냄. 인터뷰에 참여한 서비스 공급자들도 영유아/아동 복지 서비스 기관들 간의 서비스 연계(또는 기관간 네트워크)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기관들 간 실질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해왔음.
- 이전에는 부모들이 자녀의 장애나 심리적 문제를 숨기고 지역사회에서 오픈되는 것을 꺼려하는 경향을 보였음. 그러나 최근에는 치료와 지원을 받기 위해 문제를 적극적으로 오픈하는 분위기로 변화되고 있으며 지역주민과 이웃들의 인식도 많은 부분 달라지고 있었음. 또

한 가족내 복합적 문제(예를 들어 알코올) 해결을 위한 상담센터와의 연계를 하는 등 가족 전체의 문제까지도 해결하려는 의지들이 나타나고 있음.

ii 주거 및 생활비용에 대한 부담감

- 영유아 및 아동을 가진 부모들은 안정적인 주거에 대한 강한 욕구를 보이고 있음. 이는 마포가 가진 지역적, 지리적 장점 뿐만 아니라 마포에 위치한 영유아 및 아동 관련 복지 시설들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임. 한편 급격하게 높아지는 주거비용으로 인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할지 모른다는 불안정한 심리를 많이 표출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저소득계층이나 취약계층의 경우 주거비뿐만 아니라 의료비 등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이 여전함. 바우처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기는 하나, 2~3만원 정도의 본인 부담금도 어려운 것이 현실임.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할 경우 경제성 장애를 가진 영유아는 특히 장애 발생의 위험이 높음.

iii 전문센터의 부족

- 일반적인 수준의 부모교육은 자주 있는 편이나, 영유아의 월령 또는 단계별 성장과 관련된 전문적인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을 나타냄. 이전에는 부모세대나 주변 이웃들을 통하여 구체적인 정보를 습득할 수 있었으나, 최근에는 인터넷을 비롯한 각종 비공식적인 정보들만으로 어린 자녀를 돌보는 경우가 많음. 공신력이 있고 전문성이 있는 영유아 지원 전문센터를 통하여 올바른 부모교육이 필요한 사회적 환경이라고 할 수 있음.
- 인터넷, 교양센터 같은 정보접근 방식은 개별화된 사례를 다루기 보다는 일방적인 집단교육의 형태가 많고, 개별적인 질의응답을 통해 적절한 대안을 찾는 것이 불가능함. 영유아가정은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해줄 수 있는 부모교육이 필요하나, 현재의 사회적 환경은 물리적 공간을 비롯한 정책적 지원이 부족함. 소득에 상관없이 부모교육에 대한 맞춤형 지원 혹은 서비스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

iv 가족 지원 플랫폼 구축 필요

- 동주민센터의 사례관리에 이어서 경찰도 여경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에서의 학교폭력 등에 대한 사례관리를 시도한다고 함. 이와 같은 지역사회의 사례관리를 위한 정책적 환경이 급변하는 시점에 가장 시급한 것은 사례관리 시스템들을 조정하고 연결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함.
- 복합적이고 종합적으로 연계된 지원 시스템이 운영되어야 가족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네